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마가복음

MRK · 복음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16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마가복음 1장

MRK-001 · 복음서 · 헬라어

복음의 시작. 광야에서 갈릴리로, 하늘이 갈라지고 "즉시"가 본문을 떠밀며 첫 하루가 쉬지 않는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빠르게 옮겨간다 — 광야(4절) → 요단강(9절) → 갈릴리(14절) → 가버나움 회당(21절) → 시몬의 집(29절) → 한적한 곳(35절) → 온 갈릴리(39절).
- 소품 = 낙타털 옷·가죽 띠·메뚜기·석청(6절), 비둘기(10절), 그물·배(16-20절).
- 시간 표지 = "새벽 아직도 밝기 전"(35절), "저물어 해 질 때"(32절).
- 배경 인용 = 이사야의 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2-3절).
- 광야 안에 들짐승과 천사가 함께(13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머리말·족보 없이 1절 선언에서 곧장 광야로 — 숨 가쁜 시작.
- euthys(즉시)가 본문을 거듭 떠밀어 멈출 틈이 없다.
- 좁은 광야에서 시작해 끝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무리(45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 선언으로 열림.
- 45절: "사람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 큰 무리로 닫힘.
- 한 외침에서 큰 무리로 퍼지되, 끝에 그분은 "바깥 한적한 곳"으로 물러남(45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세례 요한 / 예수 / 성령(비둘기) / 하늘의 음성 / 사탄·들짐승·천사 / 시몬·안드레·야고보·요한 (16-20) /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23) / 시몬의 장모(30) / 나병환자(40).
- 부름에 "곧" 따름 — 18·20절. euthys가 부름·순종의 결에 박힘.
- 사상 = "권위"(exousia, 22·27절). 가르침의 권위와 귀신을 명하는 권위가 한 단어로 묶임.
- 공흠 = "불쌍히 여기서"(splanchnizomai, 41절) 손을 대심.
- 침묵 명령 거듭 — 귀신에게(25·34), 나병환자에게(44).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광야의 외침, 낙타털 옷의 요한, 회개의 세례.
- 컷 2 (9-13): 요단강 세례, 갈라진 하늘·비둘기·음성, 사십 일 시험.

- 컷 3 (14-20): 갈릴리 선포, 네 어부를 부르심.
- 컷 4 (21-28): 가버나움 회당, 권위, 더러운 귀신 축출.
- 컷 5 (29-34): 시몬의 집, 장모의 열병, 문 앞에 온 동네.
- 컷 6 (35-45): 새벽 기도, 온 갈릴리 전도, 나병환자를 만지심.

6 – (1) 원어 카드

- euangelion(εὐαγγέλιον) — 복음. 1·14·15절. 책의 첫 단어.
- euthys(εὐθύς) — 즉시·곧. 10·12·18·20·21·23·28·29·30·42절. 마가의 표지 단어.
- metanoia(μετάνοια) / baptizo(βαπτίζω) — 회개 / 세례. 4·15절.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위. 22·27절.
- kaleo(καλέω) — 부르심. 16-20절 어부를 부르심.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불쌍히 여기다. 41절.
- schizo(σχίζω) — 갈라지다·찢다. 10절 하늘이 갈라짐.
- pneuma(πνεῦμα) — 영. 8·10·12·23·26절 (성령 / 더러운 영).

6 – (2) 문학 구조

- 등장(1-13) → 부름(14-20) → 하루의 사역(21-45)의 세 묶음.
- euthys 반복이 장면 전환의 이음매가 됨.
- 새벽(35절)과 저물녘(32절)이 하루를 감쌌.
- 침묵 명령이 귀신·나병환자에게 거듭 — 후의 "메시아 비밀" 결의 첫 자리.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3절은 이사야(+말라기) 인용으로 "광야의 외침" 전승을 끌어옴 — 배경.
- 나병환자는 율법상 부정하여 만질 수 없는 자였음(레 13장 배경) — 41절의 만지심은 인물 행위로만 기록.
-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44절)는 정결 규례의 절차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2-3 ↔ 사 40:3 / 말 3:1 (광야의 외침 인용)
- 막 1:10 "갈라지고"(schizo) ↔ 막 15:38 (휘장이 찢어짐, 어휘 반향)
- 막 1:11 "내 사랑하는 아들" ↔ 막 9:7 (변화산 음성)
- 막 1:15 "때가 찼고" ↔ 막 4:11 (하나님 나라의 비밀)
- 막 1:44 정결 규례 ↔ 레 13-14장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광야에 낙타털 옷의 요한이 외치고,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죄를 고하며 세례를 받는다.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세례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찢어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온다. 곧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사십 일 시험이 지난다.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고, 그물 던지던 네 어부를 부르시니 곧 따른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며, 시몬의 집에서 장모를 일으키시고, 저물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인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뒤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나병환자를 불쌍

히 여겨 손을 대어 깨끗하게 하시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소문이 퍼져 그분은 한적한 곳에 머무시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아온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찢어진 하늘, 쉬지 않는 첫날 — 복음의 시작"
- 초벌 부제: "광야의 외침에서 사방의 무리로, 권위와 긍휼 사이의 첫날"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침묵 명령(25:34·44절)을 곧장 "메시아 비밀"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명령의 위치만 기록, 까닭은 보류.
- 10절 "갈라지고"(schizo)와 15:38 휘장의 반향은 어휘 교차만 표시, 신학적 연결은 묵상으로 이월.
- 41절 "만지심"을 정결 신학으로 확장하지 않고 인물 행위(닿지 말 자리에 닿음)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장은 머리말도 없이 광야의 외침으로 시작해, 찢어진 하늘과 쉬지 않는 첫날로 복음의 첫 걸음을 떼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광야의 한 외침에서 출발한다. 요단강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음성이 오자, 곧 광야의 시험을 지나 갈릴리로 들어가 "때가 찼다"고 선포한다. 네 어부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귀신을 내쫓고, 집에

서 병자를 일으키고, 새벽에 기도하러 비켜서고, 나병환자를 만지신다. euthys(즉시)가 장면마다 본문을 떠밀어, 첫날이 쉬지 않는다. 끝에는 사방에서 무리가 몰려오지만,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광야(4) → 요단강(9) → 갈릴리(14) → 회당(21) → 집(29) → 한적한 곳(35). 소품 = 낙타털 옷·메뚜기·석청·비둘기·그물.
2 첫 느낌·분위기	머리말 없는 가쁜 시작. euthys가 거듭 떠땀. 좁은 광야 → 사방의 무리.
3 시작과 끝	시작 — 복음의 선언(1절). 끝 — 사방에서 나아옴(45절), 그러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남.
4 등장인물·상황·사상	요한 / 예수 / 성령·음성 / 네 어부 / 귀신·장모·나병환자. 사상 = 권위(exousia)와 공흠(splanchnizomai).
5 장면 컷	컷 1 외침(1-8). 컷 2 세례·시험(9-13). 컷 3 부름(14-20). 컷 4 회당(21-28). 컷 5 집(29-34). 컷 6 새벽·나병(35-45).
6 의문·발견·정보	"갈라진"(schizo, 10) 하늘. 침묵 명령(25·34·44). 새벽의 물러남(35). 닿지 말 자리에 닿은 손(41).
7 동영상	광야의 외침 → 찢어진 하늘 → 갈릴리 선포 → 부름 → 하루의 사역 → 사방의 무리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찢어진 하늘, 쉬지 않는 첫날". 부제 — "광야의 외침에서 사방의 무리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광야·강·회당·한적한 곳을 걸으며 무리에서 비켜선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찢어진 하늘:** 시작부터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찢어진다'(schizo, 10절). 음성이 오고 곧 광야로 내몰린다. 축복과 시험이 잇닿아 있다.
- 결 2 — 쉬지 않는 euthys:** "곧"이 장면마다 박혀 본문을 떠민다. 부름에 곧 따르고, 회당에 곧 들어가고, 새벽에 곧 비켜선다. 속도가 분위기가 된다.
- 결 3 — 권위와 공흠의 한 손:** 귀신을 명하는 권위(22·27절)와 나병환자를 불쌍히 여겨 만지는 공흠(41절)이 같은 분의 같은 하루 안에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9:7** (변화산의 "내 사랑하는 아들"), **막 15:38** ("갈라지고"의 어휘 반향), **막 4:11** (하나님 나라의 비밀).
- 다른 권 — **사 40:3 / 말 3:1** (광야의 외침, 2-3절 인용), **레 13-14장** (정결 규례, 44절 배경).
- 정경 흐름 — 1:15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는 마가복음 전체를 여는 표제로, 이후 비유(4장)와 수난 예고(8장)의 결을 미리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광야의 외침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하늘이 찢어지고 음성이 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새벽 한적한 곳, 무리에서 비켜선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복음의 시작은 씬 없이 사람을 부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외침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 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광야의 외침으로 복음이 시작된다
- [x] 하늘이 찢어지고 음성이 온다
- [x] 네 어부가 곧 따른다
- [x] 권위 있는 가르침과 축귀가 한 하루에 있다
- [x]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비켜서 기도하신다
- [x] 나병환자를 불쌍히 여겨 만지신다
- [x] 끝은 사방의 무리와 한적한 곳의 물러남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아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다. 로마·이방인을 향해 쓰인 이 책은 예수를 **역동적인 메시아**로, 그 통치를 **권능의 증명**으로 그린다. 복음서 4중주에서 마가는 마태의 천상 차원·누가의 내면화·요한의 우주적 완성과 달리, **땅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권능**을 비춘다. 1장은 그 호(arc)의 **출발 신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1절)이라는 선언이 떨어지자, euthys(곧)가 장면마다 본문을 떠 밀어 권능이 연쇄로 터진다 — 광야의 세례, 찢어진 하늘, 부름, 축귀, 신유. 그러나 같은 장에서 권능은 이미 스스로를 가린다("잠잠하라" 25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44절).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15절)는 창 1:28의 **통치(Reign)** 명령이 한 인격 안에서 다시 선포되는 자리다. 구속사의 긴 침묵(말라기 이후) 뒤, 권능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처음 걸음을 떼는 — 그 좌표에 1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야의 한 외침 → 사방의 무리 / 찢어진 하늘(schizo) 아래, 권능이 숨었다 드러나기를 시작함(메시아 비밀의 첫 빛장).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선언에서 연쇄로 미는 운동이다. "복음의 시작"(1절) → 찢어진 하늘과 음성 (10-11절) → "**때가 찼다**"의 선포(15절) → 부름에 곧 따름(18절) → 권위 있는 가르침·축귀·신유 → 새벽의 물러남(35절) → 사방의 무리(45절).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첫걸음이 euthys로 쉬지 않고 앞으로 굴러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세례·축귀·신유의 권능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때를 따라 자기를 가리는 권능**이다 —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기적이 보이지만,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아직 십자가 전에 드러나 서는 안 될 메시아 됨이 감추인다. 귀신에게 "잠잠하라"(25절), 나병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44절) 하시는 침묵 명령은, 권능의 드러남과 숨김이 한 하루 안에 함께 있음을 보인다. 빙산의 수면 위는 거둬되는 기적이지만, 아래는 십자가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드러날 메시아 비밀의 첫 빛장이 걸리는 자리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부름이 떨어지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18절) 한 그 즉시성(euthys)이, 내 안에서도 한 번 점화되는
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광야의 외침 결과 그물을 놓는 어부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
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곧'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권위(exousia).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권위가 회당의 가르침에서 사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 지붕을 뜯고 내려온 자리에
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옛 틀과 처음 부딪친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거듭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44절) 하시는가?

- 권위를 보이시면서도 귀신과 나병환자에게 침묵을 명하심(25·34·44절).
- 침묵 명령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우리가 몰려드는데 왜 "한적한 곳"으로 빠지시는가?

- 35절 새벽 기도, 45절 바깥 한적한 곳.
- 몰려옴과 몰려남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하늘이 "갈라진"(schizo, 10절) 강한 동사는 왜인가?

- '열리다'가 아니라 '찢기다'로 표현됨.
- 어휘 선택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왜 곧바로 광야 시험(12-13절)으로 내몰리는가?

- 세례·음성 직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 축복과 시험이 잇닿은 자리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곧"(euthys)은 왜 이토록 반복되는가?

- 한 장에 열 번 넘게 박힘.
- 속도의 효과만 관찰로 남기고, 의도는 보류.

Q6. 나병환자에게 왜 굳이 "손을 대시는가"(41절)?

-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 만질 수 없는 자에게 손을 대심.
- 만지심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2장

MRK-002 · 복음서 · 헬라어

사죄의 권세에서 시작된 다섯 논쟁. 지붕을 뜯고 내려온 자리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가 갈라선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닫힌 곳에서 열린 곳으로 — 가버나움 집(1절) → 바닷가(13절) → 레위의 집(15절) → 밀밭(23절).
- 소품 = 지붕·상(들것, 3-4절), 밥상(15절), 생베·낚은 옷·새 포도주·낚은 부대(21-22절), 밀 이삭(23절).
- 배경 = "세관"(14절)에 앉은 레위 — 세리는 죄인과 묶이던 직업(배경).
- "인자"라는 자기 호칭이 처음 등장(10·28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처음은 뻑뻑함(문 앞까지 빈틈없음, 2절), 그 위로 뜯긴 지붕의 빛.
- "어찌하여"의 물음이 거듭 — 사죄·식사·금식·안식일.
- "무엇이 일어남 → 따져 물음 → 한 줄 응답"의 리듬이 다섯 번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니" — 사람들 틈에서 열림.
-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 선언으로 닫힘.
- 사죄의 권세(10절)와 안식일의 주인(28절)이 "인자"로 시작·끝에 박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무리 / 중풍병자·멘 네 사람(3) / 서기관(6) / 레위(14) / 세리·죄인(15) / 바리새인의 서기관(16) / 요한·바리새인의 제자(18) / 안식일에 따지는 바리새인(24) / 제자들.
- 다섯 논쟁 — 사죄(7), 식사(16), 금식(18), 안식일(24).
- 사상 = 부름(kaleo, 17절 "죄인을 부르러"), 사죄(aphiemi, 5·7·9·10절), 새것과 헌것(21-22절).
- "인자"의 권세 두 자리 — 사죄(10), 안식일(28).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뻑뻑한 집, 지붕을 뜯음, 사죄 선언, 상을 들고 나감.
- 컷 2 (13-14): 바닷가, 레위를 "나를 따르라".
- 컷 3 (15-17): 레위의 집 밥상,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 컷 4 (18-22): 금식 물음, 신랑·혼인집, 생베·새 포도주.
- 컷 5 (23-28): 안식일 밀밭, 다윗과 진설병, "안식일에도 주인".

6 – (1) 원어 카드

- aphiemi(ἀφίημι) – 놓아주다·용서하다. 5·7·9·10절 (죄를 사하다).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세.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 kaleo(καλέω) – 부르다. 17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 hamartolos(ἁμαρτωλός) – 죄인. 15·16·17절.
- nestis / nesteuo(νηστεύω) – 금식하다. 18·19·20절.
- sabbaton(σάββατον) – 안식일. 23·24·27·28절.
- neos / palaios(νέος / παλαιός) – 새것 / 헌것. 21-22절 (새 포도주·낡은 부대).

6 – (2) 문학 구조

- 권세(1-12) → 부름·밥상(13-17) → 옛 틀과의 충돌(18-28)의 세 묶음.
- "어찌하여…?" 물음이 다섯 논쟁의 이음매.
- "인자"의 권세가 첫 논쟁(10)과 마지막 논쟁(28)을 감쌌 — 수미 구조.
- 새것/헌것의 짝(생베·옷, 포도주·부대)이 한 비유 안에 둘.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세리(14절)는 로마 세금을 걷어 죄인과 한 부류로 여겨지던 직업 — 배경으로만.
- 다윗과 진설병(25-26절)은 삼상 21장의 선례 인용 —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다윗이 먹은 사건. 안식일 논쟁의 선례로 본문이 끌어옴.
- 진설병은 성소에 두는 거룩한 떡(레 24장 배경)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2:10 "죄를 사하는 권세" ↔ 막 2:28 "안식일의 주인" ("인자"의 권세)
- 막 2:17 "죄인을 부르러" ↔ 막 2:14 (레위를 부르심)
- 막 2:25-26 ↔ 삼상 21:1-6 (다윗과 진설병)
- 막 2:20 "신랑을 빼앗길 날" ↔ 막 14-15장 (수난의 결, 어휘 반향)
- 막 2:22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 막 1:27 ("새 교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가벼운 짐이 사람으로 가득 차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 지붕을 뜯어 상을 달아 내린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 모독이라 여긴다. 그 생각을 아시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실려 온 자가 상을 들고 나간다. 바닷가에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죄인과 잡수시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금식을 묻는 이들에게 신랑과 혼인 집 비유를 드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신다. 안식일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자, 다윗과 진설병의 선례를 드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지붕을 뜯고 내려온 자리 — 사죄와 새 포도주"
- 초벌 부제: "사죄의 권세에서 안식일의 주인까지, 새것이 헌 틀과 만나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절)와 몸의 병의 관계를 인과로 못박지 않도록 → 두 말씀의 순서만 기록.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22절)를 곧장 신·구약 도식으로 굳히지 않고 비유의 짝(새것/헌것)만 보존.
- "신랑을 빼앗길 날"(20절)을 수난 예고로 확정하지 않고 어휘 반향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2장은 지붕을 뜯고 내려온 자리에서 사죄의 권세가 선언되고, 잇따르는 다섯 논쟁이 옛 틀과 부딪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뻣뻣한 집에서 시작한다. 지붕이 뜯기고 중풍병자가 내려오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사죄의 권세가 선언된다. 이어 세관의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의 밥상에 앉으시며, 음식과 안식일을 둘러싼 물음에 신랑의 잔치와 새 포도주의 비유로 답하신다. "어찌하여...?"의 물음이 다섯 번 일어나고, 매번 "인자"의 권세가 옛 틀과 만난다. 닫힌 집에서 트인 밀밭으로 무대가 열리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집(1) → 바닷가(13) → 레위의 집(15) → 밀밭(23). 소품 = 지붕·상·밥상·새 포도주·부대·밀 이삭.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뻑뻑함과 뜯긴 지붕의 빛. "어찌하여" 물음의 반복. 일어나→따짐→응답의 리듬.
3 시작과 끝	시작 — 무리에게 말씀(1-2). 끝 — "안식일에도 주인"(28). "인자"의 권세로 감쌌.
4 등장인물·상황·사상	중풍병자·네 사람 / 레위 / 세리·죄인 / 서기관·바리새인. 사상 = 사죄(aphiemi)·부름(kaleo)·새것과 헌것.
5 장면 컷	컷 1 사죄(1-12). 컷 2 레위(13-14). 컷 3 밥상(15-17). 컷 4 금식·새 포도주(18-22). 컷 5 안식일(23-28).
6 의문·발견·정보	"그들의 믿음"(5). 다윗·진설병(25-26).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27). 실려 온 상이 들려 나감(12).
7 동영상	지붕을 뜯음 → 사죄 → 레위의 부름 → 죄인의 밥상 → 새 포도주 → 안식일의 주인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지붕을 뜯고 내려온 자리 — 사죄와 새 포도주". 부제 — "새것이 헛 틀과 만나는 자리".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집·밥상·밀밭을 걸으며 죄인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실려 온 상, 들려 나간 상:** 누워 실려 온 상(3-4절)을 그가 일어나 들고 나간다(12절). 사죄의 선언과 일어남이 한 자리에 있다.
- 결 2 — 죄인의 밥상:** 죄인으로 묶이던 자리에 들어가 함께 잡수시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17절) 하신다. 부름(kaleo)이 밥상에서 일어난다.
- 결 3 — 새것과 헛 틀:** 생베·새 포도주가 낡은 옷·부대와 부딪친다(21-22절). 다섯 논쟁은 새것이 옛 틀과 만나는 자리들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27** ("새 교훈"의 결), **막 14-15장** ("신랑을 빼앗길 날"의 어휘 반향).
- 다른 권 — **삼상 21:1-6** (다윗과 진설병, 25-26절 인용), **레 24장** (진설병 배경).
- 정경 흐름 — 2:10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2:28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호칭의 첫 두 자리로, 8장 이후 인자의 수난 예고로 이어지는 결의 머리가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뻑뻑한 집 한 귀퉁이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지붕이 뜯기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죄인의 밥상에 함께 앉으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가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부름은 옛 틀 너머에서 온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밥상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병자를 내린다
- [x]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선언된다
- [x] 세관의 레위가 부름받아 따른다
- [x] 죄인의 밥상에 함께 앉으신다
- [x] 신랑·혼인집과 새 포도주의 비유가 나온다
- [x] 안식일 밀밭에서 다윗의 선례가 들린다
- [x] 끝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아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이며, 그 통치는 권능의 증명으로 나타난다. 복음서 4중주에서 마가는 땅 위에서 쉼 없이 움직이는 역동적 메시아를 비추는데, 2장은 그 권능이 몸의 치유에서 죄의 사함으로 깊어지는 자리다. 1장이 권위(exousia)의 드러남이었다면, 2장은 그 권위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10절)로 한 칸 더 안으로 들어온다. "인자"라는 호칭이 여기서 처음 두 번(10·28절) 울리는데, 이는 8장의 수난 예고로 이어지는 결의 머리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죄인을 부르시는 부름(kaleo, 17절)은 통치(Reign)가 정복이 아니라 회복으로 임함을 보인다. 권능의 메시아가 죄인의 밥상에 앉아 옛 틀과 부딪치기 시작하는 — 그 좌표에 2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죄의 권세(aphiemi)→안식일의 주인(인자) / 옛 부대를 넘어 새 포도주로(달한 집→트인 밀밭).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죄의 자리에서 안식의 주인 되심으로 미는 운동이다. 지붕을 뜯고 내려온 사죄(5절) → 레위의 부름(14절) → 죄인의 밥상(15-17절) → 새 포도주의 비유(22절) →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28절). 다섯 논쟁이 매번 한 칸씩 옛 틀을 밀어내며, 좁은 죄의 자리에서 새 부대의 환함으로 굴러간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치유와 다섯 번의 논쟁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닿을 수 없던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는 통치다.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나가는 것이 보이지만(12절),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걸음보다 먼저 선언된 "죄 사함"이 사람의 가장 깊은 자리를 회복한다. 부르심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밥상에서 일어나고(17절), 새 포도주가 현 부대로는 담길 수 없다는 선언은, 회복이 옛 제의의 바깥에서 온다는 결을 깬다. 빙산의 수면 위는 논쟁이지만, 아래는 죄의 자리에 임하는 사죄의 권세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실려 들어온 상을 제 발로 들고 일어나 나가는(12절) 그 '일어남'이, 사죄가 곧 일으킴이 되는 그 자리가, 내 안에서 한 번 일어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뜯긴 지붕 아래 누운 자리와 죄인의 밥상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일어남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인자(the Son of Man).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옛 틀과의 부딪침이 적대로 굳어 —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안식일에 "죽일까 의논"이 시작되고, 그 대척점에 새 가족(열둘)이 세워진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병보다 "죄 사함"(5절)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 몸의 병을 들고 온 자리에서 죄 이야기를 먼저 꺼내심.
- 둘의 순서만 기록, 관계는 보존.

Q2. 왜 하필 세리·죄인과 함께 잡수시는가(15절)?

- 죄인으로 묶이던 자리에 들어가 밥상을 함께하심.
-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17절)의 결만 기록.

Q3. "신랑을 빼앗길 날"(20절)의 어두운 한 줄은 왜인가?

- 잔치 비유 한가운데 빼앗김이 들어옴.
-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왜 다윗과 진설병(25-26절)을 선례로 드시는가?

- 안식일 논쟁에 옛 사건을 끌어오심.
- 선례의 적용 범위는 보류, 인용 사실만 기록.

Q5.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27절)의 뒤집음은 무엇인가?

- 사람과 안식일의 순서를 뒤집어 말씀하심.
- 뒤집음의 결만 기록, 해석은 보류.

Q6. "인자"(10·28절)라는 호칭은 왜 여기서 처음 나오는가?

- 1장엔 없던 자기 호칭이 두 권세 자리에 박힘.
- 호칭의 무게는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3장

MRK-003 · 복음서 · 헬라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된다. 열둘을 세우고, 바알세불 논쟁을 지나, 참 가족이 다시 그려진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옮겨감 — 회당(1절) → 바다(7절) → 산(13절) → 집(20절).
- 소품 = 마른 손(1절), 작은 배(9절), 열둘의 이름·별명(16-19절), 강한 자의 집·결박(27절).
- 배경 = "바알세불"(22절, 귀신의 왕), 베드로·보아너게의 별명(16-17절).
- 밖에 선 어머니·동생들과 안에 둘러앉은 무리의 대비(31-34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서늘함 — "옛보거늘"(2), "죽일까 의논"(6).
- 가운데는 호명 — 열둘의 이름이 나열됨.
- "스스로 분쟁하면" 구조의 문장이 세 번 반복(나라·집·사탄, 24-26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회당의 "한쪽 손 마른 사람" — 고침받을 한 사람으로 열림.
- 35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 새 가족 선언으로 닫힘.
- "옛봄"(2)에서 "둘러앉음"(34)으로, 한 몸의 회복에서 한 무리의 가족으로 넓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손 마른 사람 / 옛보는 자들 / 바리새인·헤롯당(6) / 큰 무리(7-8) / 더러운 귀신(11) / 열둘(16-19) / 예루살렘 서기관(22) / 어머니·동생들(31) / 둘러앉은 자들(34).
- 노하심과 탄식이 한 시선에(5절).
- 안식일 물음 —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 생명을 구함과 죽임"(4절).
- 사상 = 열둘(dodeka, 함께 있게+보냄, 14절), 참 가족(thelema, 하나님의 뜻, 35절).
- 가족이 두 번 밖에서 옴 — 붙들러(21), 불러내려(31).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회당, 손 마른 사람, "손을 내밀라", 죽일 모의.
- 컷 2 (7-12): 바닷가, 큰 무리, 작은 배, 귀신의 외침.
- 컷 3 (13-19): 산, 열둘을 세우심, 이름과 별명.
- 컷 4 (20-30): 집, 친족의 붙듦, 바알세불 논쟁, 강한 자 결박, 성령 모독.

- 컷 5 (31-35): 밖의 가족, 둘러앉은 무리, "내 어머니와 동생들".

6 — (1) 원어 카드

- sabbaton(σάββατον) — 안식일. 2·4절 (선·악, 생명·죽임의 물음).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세.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
- dodeka(δώδεκα) — 열둘. 14·16절 (열둘을 세우심).
- Beelzeboul(Βεελζεβούλ) — 바알세불, 귀신의 왕. 22절.
- blasphemia(βλασφημία) — 모독. 28-29절 (성령 모독).
- oikia(οἰκία) — 집. 25·27절 (분쟁하는 집, 강한 자의 집).
- thelema(θέλημα) — 뜻. 35절 (하나님의 뜻).

6 — (2) 문학 구조

- 적의(1-6) → 무리·열둘(7-19) → 논쟁·가족(20-35)의 세 묶음.
-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가 나라·집·사탄으로 세 번 변주(24-26).
- 가족이 21절과 31절에 두 번 등장(인클루시오처럼 논쟁을 감쌌).
- 안(둘러앉은 무리)과 밖(선 가족)의 공간 대비(31-34).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바리새인과 헤롯당(6절)은 본래 결이 다른 두 집단 — 적의 앞에서 함께 모의함을 본문이 보고. 배경으로만.
- "바알세불"(22절)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던 이름 — 배경으로만.
-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4절)의 물음은 안식일 규례 논쟁의 자리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3:6 "죽일까 의논" ↔ 막 11-15장 (수난 모의의 결, 첫 자리)
- 막 3:14 "열둘을 세우심" ↔ 막 6:7 (열둘을 들썩 보내심)
- 막 3:22 "바알세불" ↔ 막 1:24 (귀신이 그를 알아봄)
- 막 3:35 "하나님의 뜻" ↔ 막 14:36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 막 3:4 안식일 물음 ↔ 막 2:27-28 (안식일의 주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치시는지 엿본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회복되고,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죽일 모의를 한다. 바닷가로 물러가자 사방에서 큰 무리가 몰려와, 미는 것을 면하려 작은 배를 대게 하신다. 산에 오르자 열둘을 세워 함께 있게 하고 보내시며, 베드로·보아너게의 별명을 더하시고 유다까지 호명하신다. 집에 들어가자 친족이 "미쳤다" 하며 붙들러 오고, 예루살렘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한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나라·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하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를 드신 뒤, 성령 모독에 대한 한 줄을 두신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부르자, 둘러앉은 무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손을 펴라 — 열들을 세우심과 다시 그린 가족"
- 초벌 부제: "고침이 부른 적의, 열들을 세우심, 그리고 다시 그린 가족"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성령을 모독하는 자"(29절)를 특정 교리 도식으로 못박지 않도록 → 본문의 한 줄과 위치만 기록.
-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35절)의 가족 선언을 적용으로 확장하지 않고 안팎의 대비만 보존.
- 바리새인·헤롯당의 연합(6절)을 정치 도식으로 굳히지 않고 본문 보고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3장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자리에서 적의가 또렷해지고, 열들을 세우심과 참 가족의 선언으로 안팎을 다시 가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회당에서 시작한다. "손을 내밀라" 한마디에 손이 회복되지만, 바로 죽일 모의가 일어난다. 바닷가의 큰 무리를 지나 산에 올라 열들을 세우시고, 집으로 내려오자 친족은 "미쳤다" 하고 서기관은 "바알세불" 운운한다.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는 응답과 강한 자 결박의 비유가 지나고, 밖에 선 가족과 안에 둘러앉은 무리가 갈린다. 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새 가족이 그려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당(1) → 바다(7) → 산(13) → 집(20). 소품 = 마른 손·작은 배·열들의 이름·강한 자의 집.
2 첫 느낌·분위기	서늘한 옛봄과 죽일 모의. 가운데의 호명. "스스로 분쟁하면" 세 번 변주.
3 시작과 끝	시작 — 손 마른 한 사람(1). 끝 —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가족(35).
4 등장인물·상황·사상	손 마른 사람 / 바리새인·헤롯당 / 열들 / 서기관 / 가족. 사상 = 안식일의 선·열들(dodeka)·참 가족(thelema).
5 장면 컷	컷 1 회당(1-6). 컷 2 바닷가(7-12). 컷 3 열들(13-19). 컷 4 논쟁(20-30). 컷 5 가족(31-35).
6 의문·발견·정보	노하심과 탄식(5). 바리새인·헤롯당의 연합(6). 강한 자 결박(27). 가족이 두 번 밖에서(21·31).
7 동영상	손을 펴라 → 큰 무리 → 열들을 세우심 → 바알세불 논쟁 → 다시 그린 가족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손을 펴라 — 열들을 세우심과 다시 그린 가족". 부제 — "고침이 부른 적의...".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회당·산·집을 걸으며 둘러앉은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살림과 죽임의 잇닿음:** 손을 펴게 하신 회복(5절) 바로 뒤에 죽일 모의(6절)가 붙는다.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려는 마음이 한 안식일에 있다.
2. **결 2 — 산 위의 열들:** 산에서 열들을 세우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심"(14절) 둘이다. 머무름과 보냄이 한 부름에 있다.
3. **결 3 — 안과 밖의 가족:** 밖에 선 혈육의 가족과 안에 둘러앉은 무리가 갈린다(31-34절). "하나님의 뜻"이 가족의 새 경계가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6:7** (열들을 둘씩 보내심), **막 14:36** ("아버지의 원대로"의 결), **막 2:27-28** (안식일의 주인).
- 다른 권 — **출 20:8-11** (안식일 계명 배경), **왕상 18장** (바알 계열 배경).
- 정경 흐름 — 3:6의 "죽일까 의논"은 마가복음 수난 모의의 첫 자리로, 11-15장의 결을 미리 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회당 한 귀퉁이, 옛보는 눈들 사이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손을 내밀라"에 손이 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산 위에서 이름이 불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밖에 선 가족과 안에 둘러앉은 무리 사이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그려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둘러앉은 무리 한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손을 내밀라"에 손이 회복된다
- [x] 고침 직후 죽일 모의가 일어난다
- [x] 산에서 열둘이 세워진다
- [x] 친족이 "미쳤다" 하며 붙들러 온다
- [x]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가 선포된다
- [x] 밖의 가족과 안의 무리가 갈린다
- [x]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가족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야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이며, 그 통치는 권능의 증명으로 나타난다. 3장은 그 권능이 한 사람의 회복에서 한 공동체의 형성으로 넓어지는 자리다. 복음서 4중주에서 마가는 역동적 메시아를 비추는데, 여기서는 흩어진 무리를 모으고 열둘을 세워 새 가족의 골격을 세운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산 위에서 열둘을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심"(14절)은 마 28의 제자(Disciple) 명령의 씨앗이 마가 안에 처음 심기는 자리다. 동시에 3:6의 "죽일까 의논"은 마가복음 수난 모의의 첫 자리로, 11-15장의 십자가를 미리 깬다 — 숨겨진 메시아가 드러남(십자가)을 향해 가는 호의 첫 그림자다. 권능의 메시아가 새 가족을 세우며 적대의 첫 문턱을 넘는 — 그 좌표에 3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른 손의 회복 → 새 가족의 둘러앉음(열둘) / 살림과 죽임이 갈리는 문턱에서 "하나님의 뜻(thelema)"의 새 경계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한 사람의 회복에서 한 공동체의 형성으로 미는 운동이다. 회당의 마른 손(1-5절) → 죽일 모의(6절) → 바다의 무리(7-12절) → 산 위의 열둘(13-19절) → 바알세불 논쟁(20-30절) → 둘러앉은 가족(31-35절). 한 회복이 새 가족의 둘러앉음으로 동심원처럼 퍼진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치유·임명·논쟁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흩어진 자들을 한 몸으로 다시 그리는 통치다.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마른 손이 퍼지고 열둘이 세워지는 것이 보이지만,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혈연의 옛 경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35절)의 새 경계로 옮겨진다. 산 위의 열둘은 머무름(함께 있음)과 보냄(apostello)을 한 부름에 묶어, 새 가족이 모임이자 파송임을 보인다. 빙산의 수면 위는 임명과 논쟁이지만, 아래는 흩어진 양이 새 가족으로 모이는 회복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오그라든 손을 "내밀라"는 말씀 앞에 손을 내미는(5절) 그 한 동작이, 회복이 내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한 번 일어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마른 손을 내미는 자리와 둘러앉은 무리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내뿜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하나님의 뜻(thelema).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새 가족에게 나라의 비밀이 비유로 맡겨져 — 씨가 네 땅에 떨어지고, 작은 씨가 자라며, 끝내 "잠잠하라"가 바다를 멈춘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고침 직후에 "죽일까 의논"(6절)이 붙는가?

- 살리는 일 바로 뒤에 죽이려는 모의가 놓임.
- 두 사건의 잇닿음만 기록, 까닭은 보존.

Q2. 노하심과 탄식(5절)은 어떻게 한 시선인가?

- 화와 슬픔이 같은 돌러봄에 있음.
- 두 정서의 공존만 기록.

Q3. 왜 별명(베드로·보아너게, 16-17절)을 더하시는가?

- 이름에 새 이름을 더하심.
- 별명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사실만 보존.

Q4. "강한 자를 결박"(27절) 비유는 논쟁 어디에 놓이는가?

- 바알세불 논쟁 한가운데 짧은 비유로 박힘.
- 비유의 적용 범위는 보류.

Q5. 성령 모독의 "사하심을 얻지 못함"(29절)은 무엇인가?

- 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던 분이 이 한 줄을 두심.
- 한 줄의 위치만 보존, 해석은 보류.

Q6. 가족이 두 번 밖에서 오는 까닭(21·31절)은?

- 불들러, 불리내려 — 두 번 밖에 섬.
- 안팎의 배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4장

MRK-004 · 복음서 · 헬라어

씨가 네 땅에 떨어지고, 작은 씨가 자란다. 비유로 가득한 하루 끝에 "잠잠하라"가 바다를 멈춘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바닷가 배 위 강단(1절, 무리는 육지) → 저문 바다 한가운데(35절).
- 소품 = 씨·네 가지 땅(길가·돌밭·가시떨기·좋은 땅)·새, 등불·등경·말·평상(21절), 겨자씨(31절), 베개(38절).
- 열매의 셈 = 삼십·육십·백 배(8·20절).
- 같은 바다가 처음(강단)과 끝(폭풍)을 감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흠냄새 — 땅 이야기가 거둬 나옴.
- "들으라"가 후렴처럼 박힘(3·9·23·24절).
- 잔잔한 농촌 풍경에서 끝의 폭풍으로 분위기가 급변.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 가르침으로 열림.
-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 두려운 물음으로 닫힘.
- 들음에서 두려운 물음으로, 바다의 강단에서 바다의 잠잠함으로 옮겨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온 무리(1) / 열들과 함께한 자들(10) / 제자들·풍랑(35-41).
- 무리에겐 비유, 열들에겐 따로 풀이(10·33-34절).
- 사상 = 하나님 나라의 비밀(mysterion, 11절), 하나님 나라(basileia, 26·30절), 들음(akouo, 3·9·23·24절), 잠잠함(siopao, 39절).
- 비유 풀이 = 씨 뿌리는 비유 해석(14-20절).
- 폭풍 뒤 물음 —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4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0): 배 위 강단, 씨 뿌리는 비유와 풀이, 네 가지 땅.
- 컷 2 (21-25): 등불과 등경,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 컷 3 (26-29): 자라나는 씨, "알지 못하느니라", 낮.

- 컷 4 (30-34): 겨자씨, 작은 씨 → 큰 가지, 공중의 새.
- 컷 5 (35-41): 저문 바다, 큰 광풍, 베개, "잠잠하라", 큰 평온.

6 – (1) 원어 카드

- parabole(παραβολή) – 비유. 2·10·11·13·30·33·34절.
- speiro(σπείρω) – 씨 뿌리다. 3·4·14절 등 (씨 뿌리는 비유).
- basileia(βασιλεία) – 나라. 11·26·30절 (하나님 나라).
- mysterion(μυστήριον) – 비밀.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 akouo(ἀκούω) – 듣다. 3·9·23·24절 (들으라).
- lychnos(λύχνος) – 등불. 21절.
- kokkos(κόκκος) – 씨알. 31절 (겨자씨 한 알).
- siopao(σιωπάω) – 잠잠하다. 39절 (바다에게 "잠잠하라").

6 – (2) 문학 구조

- 비유의 강단(1-34) → 바다의 사건(35-41)의 두 묶음.
- 씨앗 비유 셋(씨 뿌리는 자·자라나는 씨·겨자씨)이 작은 것→큰 것의 결로 묶임.
- "들으라"가 후렴(3·9·23·24절).
- 무리(비유)와 열둘(풀이)의 두 청중이 나뉨(11·33-34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2절은 이사야의 결("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사 6:9-10)을 본문이 인용 — 배경으로만.
- 겨자씨(31절)는 당시 밭에 흔히 심던 작은 씨 — "가장 작은 씨"의 셈은 본문의 표현. 배경으로만.
- 갈릴리 바다는 급작스러운 돌풍이 잦은 지형 — 35-41절 폭풍의 배경.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4:12 ↔ 사 6:9-10 (보아도 알지 못함, 인용)
- 막 4:11 "하나님 나라의 비밀" ↔ 막 1:15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 막 4:39 "잠잠하라" ↔ 막 1:25 (귀신에게 "잠잠하라", 같은 명령)
- 막 4:41 "바람과 바다도 순종" ↔ 시 107:29 (광풍을 평온케 하심)
- 막 4:31 겨자씨 ↔ 막 4:8 (좋은 땅의 열매, 자람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닷가 큰 무리 앞에서 배에 올라앉아 비유로 가르치신다. 씨가 네 땅에 떨어져 삼십·육십·백 배의 열매를 맺는 비유를 드시고, 따로 열둘에게 풀어 주신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자고 깨는 사이 자라는 씨와,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는 일에 비기신다. 그날 저물 때 배로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 물결이 배에 가득 찬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분을 제자들이 깨우자,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해진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두려워한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씨와 잠잠함 — 작은 씨에서 멈춘 바다까지"
- 초별 부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잠잠해진 바다까지, 작은 것의 자람과 멈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네 가지 땅(14-20절)을 청중 분류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비유와 풀이의 사실만 기록.
- "잠잠하라"(39절)와 1:25의 같은 명령은 어휘 방향만 표시, 신학적 연결은 묵상으로 이월.
- 겨자씨의 "가장 작은 씨"(31절)를 식물학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본문 표현 그대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4장은 작은 씨가 자라는 비유의 하루 끝에서 "잠잠하라"가 폭풍을 멈추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바닷가 배 위 강단에서 시작한다. 씨가 네 땅에 떨어지는 비유, 등불과 등경, 자고 깨는 사이 자라는 씨,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는 비유가 잇따른다. "들으라"가 후렴처럼 박힌다. 그날 저물 때 배로 건너가시다 큰 광풍을 만나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분이 일어나 "잠잠하라"는 한마디로 바다를 멈추신다. 비유로 들리던 말씀이 바다 위에서 사건이 되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두려워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배 위 강단(1) → 저문 바다(35). 소품 = 네 가지 땅·등불·겨자씨·베개.
2 첫 느낌·분위기	흄냄새와 "들으라"의 후렴. 잔잔한 농촌에서 끝의 폭풍으로 급변.
3 시작과 끝	시작 — 가르치심(1). 끝 — "그가 누구이기에"(41). 바다가 처음·끝을 감쌌.
4 등장인물·상황·사상	무리(비유)·열둘(풀이)·제자(폭풍). 사상 = 하나님 나라의 비밀(mysterion)·들음(akouo)·잠잠함(siopao).
5 장면 컷	컷 1 씨 뿌리는 비유(1-20). 컷 2 등불(21-25). 컷 3 자라나는 씨(26-29). 컷 4 겨자씨(30-34). 컷 5 풍랑(35-41).
6 의문·발견·정보	자는 사이의 자람(27). 이사야 인용(12). 바람을 꾸짖으심(39). 폭풍 속의 베개(38).
7 동영상	비유의 강단 → 저문 바다 → 큰 광풍 → "잠잠하라" → 큰 평온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씨와 잠잠함 — 작은 씨에서 멈춘 바다까지". 부제 — "작은 것의 자람과 멈춤".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강단·네 가지 땅·저문 바다를 걸으며 폭풍 가득한 배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러나.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모르는 자람**: 자고 깨는 사이 씨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게"(27절) 자란다. 사람이 모르는 자람이 하나님 나라의 결로 놓인다.
2. **결 2 — 작은 씨, 큰 가지**: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가 깃든다(31-32절). 작음에서 큰 것으로의 거리가 한 비유에 담긴다.
3. **결 3 — 같은 "잠잠하라"**: 1:25에서 귀신에게 하신 명령(siopao)이 4:39에서 바다에게 놓인다. 비유로 들리던 말씀이 바다 위에서 사건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15**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막 1:25** ("잠잠하라"의 같은 명령), **막 4:8** (좋은 땅의 열매).
- 다른 권 — **사 6:9-10** (보아도 알지 못함, 12절 인용), **시 107:29** (광풍을 평온케 하심).
- 정경 흐름 — 4:11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유 장(4장)의 표제이자, 이후 거라사·혈루증(5장)의 사건들이 그 나라의 결을 사건으로 풀어내는 다리가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바닷가 육지, 비유를 듣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씨가 네 땅에 떨어지는 비유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자는 사이 자라는 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폭풍 가득한 배, "잠잠하라"가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말씀은 들음에서 사건으로 건너간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물음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씨가 네 땅에 떨어진다
- [x]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 [x] 씨가 자는 사이 자란다
- [x]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낸다
- [x] 저문 바다에 큰 광풍이 인다
- [x] "잠잠하라"에 바다가 잔잔해진다
- [x] 끝은 "그가 누구이기에"의 두려운 물음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야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이며, 그 통치는 권능의 증명으로 나타난다. 4장은 그 권능이 비유라는 가림막으로 나라를 맡기는 자리다 — 메시야 비밀의 주제가 가르침의 방식 자체에 스며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11절)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어지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비유로 가려진다는 것은, 권능이 드러나면서도 숨는 마가 특유의 이중 결이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씨가 자라 결실하는 나라(통치, Reign)는 외적 정복이 아니라 마음의 땅에 떨어진 말씀의 자람으로 임한다. 그리고 비유로 들리던 나라가 "잠잠하라"(39절) 한 명령으로 바다 위에서 사건이 되어, 1:25의 권위가 자연에까지 미친다. 숨겨진 메시야가 비유로 나라를 맡기고 그 권능을 바다에 증명하는 — 그 좌표에 4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뿌려진 작은 씨(parabole)→잠잠해진 바다(siopao) / 들리던 말씀에서 바다를 멈추는 한 권세로(비유→사건).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비유에서 사건으로 미는 운동이다. 네 땅의 씨(1-20절) → 등불(21-25절) → 모르는 자람(26-29절) → 겨자씨(30-34절) → "잠잠하라"의 풍랑(35-41절). 들음의 비유로 가득한 하루가 끝내 바다를 멈추는 한 명령으로 봉인된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비유들과 풍랑의 잔잔케 됨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들음의 깊이 **따라 갈리는 나라의 자람**이다.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씨와 겨자씨와 멈춘 바다가 보이지만,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9:23절)가 마음의 땅을 가르다. 같은 씨가 네 땅에서 다른 결말을 맺는 것은, 나라의 자람이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도(27절) 이루어지되 받는 마음에 달려 있음을 보인다. 빙산의 수면 위는 비유와 기적이지만, 아래는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의 토양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난다"(27절)는 그 모르는 자람을, 내가 어찌지 못하는 그 자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한 번 놓이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씨를 받는 네 땅 가운데 한 자리와 폭풍 속 베개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모르는 자람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잠잠하라(siopao).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바다를 멈춘 그 권세가 건너편 무덤가로 가 — 군대 귀신과 혈루증과 죽은 소녀의 자리, 곧 사람이 닿을 수 없던 부정의 자리마다 손이 닿는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무리에겐 비유로, 열둘에겐 풀이로(33-34절) 나뉘는가?

- 두 청중에 두 말하심.
- 나눔의 까닭은 본문이 인용으로만 짚음(12절). 사실만 보존.

Q2.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27절)는 무엇인가?

- 사람이 모르는 자람이 있음.
- 자람의 결만 기록, 해석은 보류.

Q3. 왜 "가장 작은 씨"(31절)를 드시는가?

- 가장 작은 것에서 큰 가지로.
- 작음과 큼의 대비만 기록.

Q4. 폭풍 속에서 어떻게 주무시는가(38절)?

- 물결이 가득 찬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심.
- 주무심과 두려움의 공존만 기록.

Q5. 왜 바람을 "꾸짖으시는가"(39절)?

-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심.
- 꾸짖음의 대상만 기록, 까닭은 보류.

Q6. "그가 누구이기에"(41절)의 물음은 어디로 가는가?

- 두려움 가운데 정체를 묻는 물음.
- 물음의 향방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5장

MRK-005 · 복음서 · 헬라어

무덤의 군대 귀신이 떠나고, 옷자락 하나가 능력을 끌어내며,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 닿는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바다 건너편 거라사 무덤가(1-2절) → 다시 건너옴(21절) → 회당장 야이로의 집(22·38절).
- 소품 = 무덤·쇠고랑·쇠사슬(3-4절), 돼지 떼(11절), 옷자락(27절), 손(41절).
- 두 "열두" — 여인의 열두 해(25절), 소녀의 열두 살(42절).
- 배경 = 거라사·데가볼리(이방 지역), "군대"(legion, 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어두운 무덤(부르짖음·쇠사슬)에서 시작해 일어나 걷는 소녀의 밝음으로 끝남.
- 만짐·닿음의 몸 이미지가 거듭(옷·옷자락·손).
- 두려움이 세 겹로 — 동네(15절), 여인(33절), 회당장(36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무덤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 무덤으로 열림.
- 43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 일어난 소녀의 밥상으로 닫힘.
- 무덤에서 밥상으로, 부르짖음에서 잔잔한 돌봄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2) / 군대 귀신(9) / 돼지 치던 자(14) / 거라사 사람들(15) / 회당장 야이로(22) / 혈루증 여인(25) / 야이로의 딸(23·42) / 우는 자들(38).
- 두 절박 — 회당장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23), 여인 "옷에만 손을 대어도"(28).
- 사상 = 닿음(haptomai, 27-31절), 능력(dynamis, 30절), 믿음(pistis, 34·36절), 구원(sozo, 23·28·34절).
- 아람어 그대로 — "달리다굼"(Talitha koum, 41절, 본문이 풀이).
- 따라가겠다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심(1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3): 무덤가, "군대", 돼지 떼가 바다에 빠짐.
- 컷 2 (14-20): 정신 든 사람, 떠나기를 구하는 동네, "집으로 알리라".
- 컷 3 (21-24): 다시 건너옴, 야이로의 옆드림.

- 컷 4 (25-34): 혈루증 여인, 옷자락, "능력이 나간 줄", "네 믿음이 구원".
- 컷 5 (35-43): "딸이 죽었나이다", "믿기만 하라", "달리다꿈", 일어나 걸음, 먹을 것을 주라.

6 – (1) 원어 카드

- legion(λεγιών) – 군대. 9·15절 (귀신의 이름, 많음).
- haptomai(ἅπτομαι) – 닿다·만지다. 27·28·30·31절.
- dynamis(δύναμις) – 능력. 30절 (능력이 나간 줄).
- pistis(πίστις) – 믿음. 34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
- sozo(σώζω) – 구원하다·낫게 하다. 23·28·34절.
- phobos / phobeo(φοβέω) – 두려움. 15·33·36절.
- Talitha koum(아람어) – "소녀야 일어나라". 41절 (본문이 풀이).

6 – (2) 문학 구조

- 거라사(1-20) → 야이로·여인(21-43)의 두 묶음.
- 끼워 넣기(샌드위치) – 야이로의 딸(컷 3·5)이 혈루증 여인(컷 4)을 감쌌.
- 두 "열두"의 호응(여인 12해 / 소녀 12살).
- sozo(구원)가 두 회복(여인·소녀)에 걸침.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거라사·데가볼리(1·20절)는 이방 지역 – 돼지 떼(부정한 짐승)가 그 배경. 배경으로만.
- 혈루증(25절)은 율법상 부정으로 여겨져 닿음이 금지되던 상태(레 15장 배경) – 27절 옷자락 만짐의 배경. 배경으로만.
- 죽은 자에게 닿음 역시 정결 규례상 부정을 부르던 행위(민 19장 배경) – 41절의 손잡음 배경.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5:34 "네 믿음이 너를 구원" ↔ 막 10:52 (바디매오, 같은 말씀)
- 막 5:41 "달리다꿈" ↔ 막 7:34 ("에바다", 아람어 보존의 결)
- 막 5:7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 막 1:24 (귀신이 그를 알아봄)
- 막 5:23 손을 얹어 주심 ↔ 막 6:5 (병자에게 손을 얹으심)
- 막 5:19 "집으로 돌아가 알리라" ↔ 막 7:31-37 (데가볼리 지역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다 건너편 무덤가에서 쇠사슬도 끊던 사람이 달려와 엎드린다. 이름을 물으시니 "내 이름은 군대"라 하고, 귀신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 바다에 빠진다. 동네 사람들이 정신 든 사람을 보고 도리어 무서워하며 떠나시기를 구하니, 따라가겠다는 그를 "집으로 돌아가 알리라" 하시고 그가 데가볼리에 전파한다. 다시 건너오시자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청한다. 가시는 길에 열두 해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끝나오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다. 그때 "딸이 죽었다"는 말이 오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는 집에 들어가 "달리다꿈" 하시니 열두 살 소녀가 일어나 걷는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달리다굼 — 무덤과 옷자락과 죽은 자리에 닿은 손"
- 초벌 부제: "무덤과 옷자락과 죽은 자리에 닿은 손, 세 번의 회복"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돼지 떼의 빠짐(13절)을 경제·윤리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 사건의 사실만 기록.
- "네 믿음이 너를 구원"(34절)을 믿음의 공식으로 굳히지 않고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존.
- 두 "열두"(25·42절)의 호응을 상징 해석으로 못박지 않고 숫자의 일치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5장은 무덤의 군대 귀신과 옷자락의 여인과 죽은 소녀를 지나며, 닿을 수 없는 자리마다 손이 닿는 세 회복의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어두운 무덤가에서 시작한다. 쇠사슬도 끊던 사람에게서 "군대"라는 귀신이 돼지 떼로 떠나고, 정신 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신다. 바다를 건너와 회당장 아이로의 딸에게로 가는 길에, 열두 해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 능력을 끌어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을 듣는다. 그 사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지만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달리다굼"으로 일으키신다. 무덤에서 밥상으로, 부르짖음에서 먹을 것을 주라는 돌봄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거라사 무덤가(1) → 건너움(21) → 아이로의 집(22). 소품 = 쇠사슬·돼지 떼·옷자락·손. 두 "열두".
2 첫 느낌·분위기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나 걷는 소녀의 밝음으로. 만짐의 몸 이미지. 세 결의 두려움.
3 시작과 끝	시작 — 무덤의 사람(1-2). 끝 — "먹을 것을 주라"(43). 무덤에서 밥상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군대 귀신 / 아이로 / 혈루증 여인 / 소녀. 사상 = 닿음(haptomai)·능력(dynamis)·믿음(pistis)·구원(sozo).
5 장면 컷	컷 1 군대 귀신(1-13). 컷 2 정신 든 사람(14-20). 컷 3 아이로(21-24). 컷 4 옷자락(25-34). 컷 5 달리다굽(35-43).
6 의문·발견·정보	옷 입고 앉음(15). 떠나기를 구함(17). 미는 무리와 만진 한 사람(30-32). 죽은 손을 잡음(41).
7 동영상	무덤의 군대 → 돼지 떼 → 아이로의 청 → 옷자락의 여인 → "달리다굽"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달리다굽 — 무덤과 옷자락과 죽은 자리에 닿은 손". 부제 — "세 번의 회복".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무덤가·미는 무리·우는 집을 걸으며 옷자락에 다가가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만질 수 없는 자리에 닿음:** 부정으로 여겨지던 무덤·혈루증·죽음의 자리마다 손이 닿는다(27·41절). 닿음(haptomai)이 세 회복의 한 줄을 꿰는다.
- 결 2 — 옷자락 하나, 나간 능력:** 미는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의 만짐에서 능력(dynamis)이 나간다(30절). 무리와 한 사람이 갈린다.
- 결 3 — 두 "열두"의 호응:** 여인의 열두 해(25절)와 소녀의 열두 살(42절)이 같은 숫자로 만난다. 오랜 앓음과 짧은 생이 한 장에 포개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0:52**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의 반복), **막 7:34** ("에바다", 아람어 보존의 결), **막 6:5** (손을 얹어 고치심).
- 다른 권 — **레 15장** (혈루증 배경), **민 19장** (죽은 자 접촉 배경).
- 정경 흐름 — 5장의 닿음과 구원(sozo)은 6장의 오병이어·물 위 걸음으로 이어지며, 능력의 결을 무리 전체로 넓혀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무덤가, 부르짖음이 들리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정신 든 사람이 옷 입고 앉은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믿기만 하라" 사이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손이 닿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옷자락에 손을 대려 다가가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무덤의 사람에게서 "군대"가 떠난다
- [x] 돼지 떼가 바다에 빠진다
- [x] 동네가 떠나시기를 구한다
- [x] 옷자락 하나에서 능력이 나간다
- [x]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가 들린다
- [x] "달리다굼"에 소녀가 일어난다
- [x] 끝은 "먹을 것을 주라"는 돌봄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아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이며, 그 통치는 권능의 증명으로 나타난다. 5장은 그 권능이 죽음과 부정의 자리까지 미치는 절정의 증명이다. 4장의 "잠잠하라"가 자연을 다스렸다면, 5장은 귀신(군대)·만성 질병(혈루증)·죽음(소녀)이라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세 영역을 차례로 건드린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율법이 "가까이 가지 말라"던 부정의 경계를 닿음(haptomai)으로 넘어 회복하는 것은, 거룩(Holiness)이 격리가 아니라 임함으로 작동하는 통치를 보인다. 닿음이 부정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살리는 이 역전은, 십자가에서 죄의 자리에 임해 살리는 운동을 미리 비춘다. 권능의 메시아가 가장 닿을 수 없는 자리마다 손을 대는 — 그 좌표에 5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덤(죽음·부정)→밥상("먹을 것을 주라") / 만질 수 없던 자리에 닿는 손(haptomai)에서 "달리다굼"의 일으킴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밥상으로 미는 운동이다. 거라사 무덤의 군대 귀신(1-13절) → 정신 든 사람(14-20절) → 아이로의 청(21-24절) → 옷자락의 닿음(25-34절) → "달리다굼"(35-43절). 닿을 수 없던 세 자리가 한 줄로 꿰여 회복으로 굴러간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축귀·신유·소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닿을 수 없던 자에게 임하는 닿음의 통치다.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귀신이 돼지 떼로 떠나고 여인이 낫고 소녀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만,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율법이 격리하던 부정(죽음·혈루·시신)의 경계가 닿음으로 무너진다. 여인의 열두 해(25절)와 소녀의 열두 살(42절)이 같은 숫자로 만나, 오랜 앓음과 짧은 생이 한 회복 아래 포개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기적이지만, 아래는 부정의 경계를 넘어 살리는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28절)며 뒤에서 떨어져 옷자락 하나에 손을 뺏는 그 믿음이, 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손 뺏음이, 내 안에서 한 번 일어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옷자락에 손을 뺏는 여인 곁과 죽은 손을 잡으시는 침상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손 뺏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달리다굼(Talitha koum).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달음으로 살리던 권능이 고향에서는 배척을 만나고, 그 사이 빈 들이 오병이어로 채워지며 밤바다 위로 "내니"가 다가온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동네는 회복을 보고도 떠나시기를 구하는가(17절)?

- 정신 든 사람을 보고 도리어 무서워함.
- 두려움과 떠나기를 구함의 잇닿음만 기록.

Q2. 따라가겠다는 사람을 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가(19절)?

- "집으로 돌아가 알리라" 하심.
- 돌려보냄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사실만 보존.

Q3. "능력이 나간 줄"(30절)은 어떻게 아시는가?

- 미는 무리와 만진 한 사람을 가르심.
- 능력의 나감만 기록, 작용은 보류.

Q4. "딸이 죽었다"는 말에 왜 "믿기만 하라"(36절)인가?

- 죽음의 소식 그 순간에 믿음을 말씀하심.
- 소식과 말씀의 잇닿음만 기록.

Q5. 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는가(41절)?

- 닿을 수 없는 자리에 다시 손이 닿음.
- 손잡음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6. 살리신 뒤 왜 "알지 못하게 하라"(43절)인가?

- 큰 일 뒤에 침묵을 명하심(1:3장의 결과 이음).
- 침묵 명령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6장

MRK-006 · 복음서 · 헬라어

고향이 배척하고 요한이 죽는 사이, 빈 들이 오병이어로 채워지고 밤바다 위로 "내니"가 다가 온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빠르게 옮겨감 — 고향 회당(1절) → 여러 마을(6절) → 헤롯의 궁(21절) → 빈 들(32절) → 밤바다(47절) → 게네사렛(53절).
- 소품 = 지팡이·신·옷(8-9절, 보냄), 소반에 얹힌 머리(28절), 떡 다섯·물고기 둘(38절), 열두 바구니(43절).
- 무리가 백 명·오십 명씩 풀밭에 앉음(39-40절).
- 썸 = 오천 명(44절), 열두 바구니(43절), 밤 사경(48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고향의 배척과 요한의 죽음의 어둠, 오병이어의 채움의 빛이 번갈아 옴.
- "한적한 곳·빈 들"이 거듭 강조(31·32·35절).
- 헤롯의 잔칫상과 빈 들의 떡상의 대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고향으로 가심 — 배척으로 열림.
- 56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 물려드는 무리로 닫힘.
-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심"(6)에서 사방의 간구로, 배척에서 물려듬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고향 사람들(2-3) / 열둘(7) / 헤롯(14) / 세례 요한(16) / 헤로디아·딸(19·22) / 큰 무리(34) / 밤바다의 제자들.
- 보냄 — 둘씩 보내심(apostello, 7절), 빈손의 지침(8-9절).
- 사상 = 궁핍(splanchnizomai, 34절, 목자 없는 양), "내니"(ego eimi, 50절).
- 믿지 않음(apistia) — 고향(6절)과 둔한 제자(52절)에 걸침.
- 끼워 넣기 — 보냄(7-13)과 돌아옴(30) 사이에 요한의 죽음(14-29).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고향 회당, "목수가 아니냐", 배척.
- 컷 2 (7-13): 둘씩 보내심, 빈손의 지침, 회개 전파·고침.
- 컷 3 (14-29): 헤롯의 두려움, 생일 잔치, 소반의 머리.

- 컷 4 (30-44): 빈 들, 목자 없는 양, 오병이어, 열두 바구니.
- 컷 5 (45-52): 밤바다, 물 위로 걸으심, "내니", 둔한 마음.
- 컷 6 (53-56): 게네사렛, 옷가에 손을 댐.

6 – (1) 원어 카드

- patris(πατρίς) – 고향. 1·4절.
- apostello(ἀποστέλλω) – 보내다. 7절 (둘씩 보내심).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불쌍히 여기다. 34절 (목자 없는 양).
- poimen(ποιμήν) – 목자. 34절 (목자 없는 양 같음).
- artos(ἄρτος) – 떡. 38·41·44·52절.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내니". 50절 (밤바다).
- eremos(ἔρημος) – 한적한 곳·빈 들. 31·32·35절.
- apistia(ἀπιστία) – 믿지 않음. 6절 (+52절 둔한 마음의 결).

6 – (2) 문학 구조

- 배척(1-6) → 보냄·죽음·돌아옴(7-30) → 채움·바다(31-56)의 세 묶음.
- 끼워 넣기 – 요한의 죽음(14-29)이 열둘의 보냄과 돌아옴을 가름.
- 두 밥상의 대비 – 헤롯의 생일 잔치(21-22)와 빈 들의 떡상(39-42).
- 믿지 않음의 호응 – 고향(6)과 제자의 둔한 마음(52).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11절)는 당시 결별·증거의 표시 – 배경으로만.
- 헤롯의 생일 잔치(21절)와 맹세(23절)는 분봉왕의 연회 관습 배경 – 배경으로만.
- "목자 없는 양"(34절)은 구약의 표현(민 27:17, 겔 34장 결)을 본문이 끌어옴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6:34 "목자 없는 양" ↔ 민 27:17 / 겔 34장 (목자 없는 양 떼)
- 막 6:41 오병이어 ↔ 막 8:6-9 (사천 명, 떡 떼심의 결)
- 막 6:50 "내니" ↔ 막 4:39 (바다를 다스리심)
- 막 6:4 "고향에서는" ↔ 막 3:21 (친족이 미쳤다 함)
- 막 6:52 "둔한 마음" ↔ 막 8:17-21 (떡을 깨닫지 못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목수가 아니냐" 하며 배척하고, 그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다. 열둘을 둘씩 빈손으로 보내시니 회개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친다. 한편 헤롯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생일 잔치에서 딸의 춤과 맹세로 요한이 죽고 그 머리가 소반에 담긴다. 돌아온 사도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시나 무리가 먼저 와 있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가르치고, 떡 다섯과 물고기 둘로 오천 명을 먹이시니 열두 바구니가 남는다. 제자들을 배로 보내고 산에서 기도하시다, 밤 사경에 거스르는 바람을 만난 그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 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 바람이 그친다. 게네사렛에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병자를 데려와 옷가에 손을 대게 해 달라 간구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빈 들과 밤바다 — 배척과 죽음 사이의 채움"
- 초벌 부제: "배척과 죽음 사이, 빈 들의 채움과 밤바다의 걸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5절)를 능력의 한계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본문의 표현과 "믿지 않음"의 잇닿음만 기록.
- 오병이어(41절)를 성찬 도식으로 곧장 끌고 가지 않고 떼고 나눠 주심의 손짓만 보존.
- "지나가려고 하시매"(48절)를 신학적 의도로 못박지 않고 본문의 표현 그대로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6장은 고향의 배척과 요한의 죽음 사이에서, 빈 들이 오병이어로 채워지고 밤바다 위로 "내니"가 다가오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고향의 배척에서 시작한다. 열둘을 둘씩 빈손으로 보내시는 사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소반의 머리로 죽는다. 돌아온 사도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시나 무리가 먼저 와 있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떡 다섯과 물고기 둘로 오천 명을 먹이신다. 밤 사경, 거스르는 바람에 힘겨운 제자

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 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배척과 죽음의 어둠 사이로 채움의 빛이 번갈아 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고향 회당(1) → 헤롯의 궁(21) → 빈 들(32) → 밤바다(47) → 게네사렛(53). 소품 = 지팡이·소반의 머리·떡·열두 바구니.
2 첫 느낌·분위기	배척·죽음의 어둠과 오병이어의 빛이 교차. "빈 들" 강조. 두 밥상의 대비.
3 시작과 끝	시작 — 고향의 배척(1-6). 끝 — 옷가에 손을 댄(56). 배척에서 물려들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고향 사람들 / 열둘 / 헤롯·요한 / 큰 무리 / 밤바다의 제자. 사상 = 보냄(apostello)·공홀(splanchnizomai)·"내니"(ego eimi).
5 장면 컷	컷 1 배척(1-6). 컷 2 보냄(7-13). 컷 3 요한의 죽음(14-29). 컷 4 오병이어(30-44). 컷 5 물 위 걸음(45-52). 컷 6 게네사렛(53-56).
6 의문·발견·정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5). 빈손의 보냄(8-9). 헤롯의 두려움(20). "지나가려"(48). 둔한 마음(52).
7 동영상	고향의 배척 → 들썩 보냄 → 요한의 죽음 → 빈 들의 채움 → 밤바다의 "내니"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빈 들과 밤바다 — 배척과 죽음 사이의 채움". 부제 — "빈 들의 채움과 밤바다의 걸음".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고향 회당·빈 들·밤바다를 걸으며 떡을 기다리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끼워 넣어진 죽음:** 열둘의 보냄(7-13절)과 돌아옴(30절) 사이에 요한의 죽음(14-29절)이 끼인다. 사명과 최후가 한 틀 안에 놓인다.
- 결 2 — 두 밥상:** 헤롯의 생일 잔칫상(21-22절)과 빈 들의 떡상(39-42절)이 마주 선다. 한 상은 죽음을 부르고, 한 상은 오천 명을 채운다.
- 결 3 — 둔한 마음:** 고향의 "민지 앎음"(6절)과 오병이어를 보고도 둔해진 제자의 마음(52절)이 같은 결로 호응한다. apistia가 배척과 둔함을 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8:6-9** (사천 명, 떡 떼심), **막 4:39** (바다를 다스리심), **막 8:17-21** (떡을 깨닫지 못함).
- 다른 권 — **민 27:17 / 겔 34장** (목자 없는 양), **레 11장** (정결과 잔치 배경).
- 정경 흐름 — 6장의 오병이어와 둔한 마음은 8장의 사천 명·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이어지며, "떡을 깨닫는가"라는 물음의 결을 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고향 회당, 배척의 수군거림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빈손으로 보냄받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소반의 머리가 들어오는 잔칫상에서 멈춘다.
- **멈춤 3:** 빈 들이 떡으로 채워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배척과 죽음 사이에서도 빈 들은 채워진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빈 들의 풀밭, 떡을 기다리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고향이 "목수가 아니냐" 하며 배척한다
- [x] 열둘이 돌씩 빈손으로 보냄받는다
- [x]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 온다
- [x] 떡 다섯으로 오천 명이 먹는다
- [x] 열두 바구니가 남는다
- [x] 밤바다 위로 "내니 두려워 말라"가 온다
- [x] 끝은 옷가에 손을 대려는 무리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아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이며, 그 통치는 권능의 증명으로 나타난다. 6장은 그 권능이 배척과 죽음의 그림자 한복판에서 목자의 돌봄으로 나타나는 자리다. 고향의 불신(1-6절)과 요한의 죽음(14-29절)이 권능의 행진에 어두운 띠를 두르는데, 그 사이에 빈 들의 떡(30-44절)과 밤바다의 "내니"(ego eimi, 50절)가 끼인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34절) 떡으로 먹이심은, 겔 34장의 참 목자 약속이 마가 안에서 성취되는 자리다 — 통치(Reign)가 권력의 잔칫상(헤롯)이 아니라 빈 들의 떡상으로 나타난다. 권능의 메시아가 배척과 순교의 그늘 속에서도 흠어진 양을 먹이는 — 그 좌표에 6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향의 배척(apistia)→몰려드는 무리 / 빈 들의 굶주림에서 떡(artos)으로 채우는 참 목자의 돌봄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배척에서 먹이심으로 미는 운동이다. 고향의 불신(1-6절) → 열둘의 보냄(7-13절) → 요한의 죽음(14-29절) → 오병이어(30-44절) → 물 위 걸음(45-52절) → 계네사렛(53-56절). 죽음과 둔함의 그늘을 지나 떡과 손길이 점점 넓은 무리에게 번져간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오병이어와 물 위 걸음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목자 없는 양을 먹이는 참 목자의 돌봄이다.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것이 보이지만,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흠어진 양의 굶주림이 채워진다. 헤롯의 생일상이 죽음을 부르는 권력의 상이라면, 빈 들의 떡상은 생명을 먹이는 통치의 상이다 — 두 밥상이 한 장에 마주 선다. 빙산의 수면 위는 기적의 풍성이지만, 아래는 목자의 긍휼(splanchnizomai)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가진 게 떡 다섯뿐인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37절) 하시는 그 부름 앞에, 가진 것을 떼어 내미는 그 내어놓음이, 내 안에서 한 번 일어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빈 들에서 떡을 떼는 손 곁과 밤바다 위 "내니"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내어놓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떡(artos).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떡의 자리가 마음으로 옮겨가 — 씻음의 전통이 마음에게 길을 내주고, 상 아래 부스러기가 경계를 넘으며, 닫힌 귀에 "에바다"가 닿는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고향에서는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5절)고 하는가?

- "믿지 않음"(6절)과 잇닿아 놓임.
- 표현과 잇닿음만 기록, 해석은 보류.

Q2. 왜 빈손으로 보내시는가(8-9절)?

- 지팡이 외엔 지니지 말라 하심.
- 빈손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사실만 보존.

Q3. 왜 보냄과 돌아옴 사이에 요한의 죽음(14-29절)이 끼는가?

- 제자의 사명과 선지자의 최후가 한 자리에 놓임.
- 배치만 기록, 까닭은 보류.

Q4. "지나가려고 하시매"(48절)는 무엇인가?

- 도우러 오신 듯한데 지나가려 하심.
- 표현만 기록, 의도는 묵상으로 이월.

Q5. 오병이어를 보고도 왜 마음이 둔한가(52절)?

-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함.
- 둔함의 결만 기록, 까닭은 보류.

Q6. 끝의 "옷가에 손을 댄"(56절)은 어디로 가는가?

- 5장 옷자락(28절)의 결이 무리 전체로 넓어짐.
- 넓어짐의 향방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7장

MRK-007 · 복음서 · 헬라어

씻음의 전통이 마음에게 길을 내주고, 상 아래 부스러기가 경계를 넘으며, 닫힌 귀에 "에바다"가 닿는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유대에서 이방으로 넓어짐 — 갈릴리 논쟁의 자리(1절) → 두로 지방(24절) → 시돈·데가볼리(31절).
- 소품 = 씻지 않은 손·잔·주발·눗그릇(3-4절), 떡과 상 아래 부스러기(27-28절), 침·손가락·혀(33절).
- 본문이 원어를 풀이 — "고르반"(11절), "에바다"(34절).
- 본문의 덧붙인 풀이 —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심"(1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따지는 규례 논쟁(뽁뽁함), 뒤는 여인·귀먹은 자의 따뜻한 회복.
- "안과 밖"이 구조처럼 박힘(15·20-23절).
- "전통"이 거듭 강조(3·5·8·9·13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예루살렘 사람들의 따짐 — 입의 논쟁으로 열림.
- 37절: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 입과 귀의 회복으로 닫힘.
- "어찌하여 씻지 않느냐"(5)의 따짐에서 "잘하였도다"(37)의 놀람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서기관(1) / 제자들(2·17) / 무리(14) / 수로보니게 여인·딸(25-26) / 귀 먹고 어눌한 사람(32).
- 논쟁 = 손 씻음 전통(paradosis, 3-13절), 이사야 인용(6-7절).
- 사상 = "속에서 나오는 것"(kardia, 21절), 더럽게 함(koinoo, 15·20절).
- 이방 회복 —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러기(28절), "에바다"(Ephphatha, 34절).
- 여시기 전 탄식(3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3): 손 씻음 논쟁, 이사야 인용, "고르반".
- 컷 2 (14-23): "밖이 아니라 안에서", 따로 풀이, 마음의 악들.
- 컷 3 (24-30): 두로, 수로보니게 여인, "상 아래 부스러기", 딸이 나옴.

- 컷 4 (31-35): 데가볼리, 침·손가락, "에바다", 귀와 혀가 열림.
- 컷 5 (36-37): 막으실수록 전파,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6 – (1) 원어 카드

- paradosis(παράδοσις) – 전통. 3·5·8·9·13절.
- Korban(κορβάν) –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11절 (본문이 풀이).
- koinos / koinoo(κοινόω) – 속되게·더럽게 하다. 15·18·20·23절.
- kardia(καρδία) – 마음. 6·21절 (속에서 나오는 것).
- Ephphatha(아람어) – "열리라". 34절 (본문이 풀이).
- psomion(ψωμίον 계열) – 부스러기. 28절 (상 아래 부스러기).
- splanchnizomai 계열 – 탄식·연민. 34절 ("탄식하시며").

6 – (2) 문학 구조

- 전통·마음(1-23, 유대) → 이방의 회복(24-37, 두로·데가볼리)의 두 묶음.
- 안(마음·속)과 밖(손·그릇)의 대비가 컷 1-2의 축.
- 본문이 직접 풀이를 덧붙임 – "고르반"(11), "음식물을 깨끗하다"(19), "에바다"(34).
- 막을수록 전파됨(36절, 1·5장의 침묵 명령과 같은 결).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손·그릇 씻음(3-4절)은 장로의 전통(랍비 정결 규례)으로, 율법 자체와 구분됨 – 배경으로만.
- "고르반"(11절)은 예물로 구별했다는 서원의 말 – 부모 봉양을 면하는 돌리담을 본문이 짚음. 배경으로만.
- "자녀와 개"(27절)는 유대(자녀)와 이방(개)의 당시 구분 위에서 오간 대화 – 본문 보고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7:6-7 ↔ 사 29:13 (입술로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인용)
- 막 7:34 "에바다" ↔ 막 5:41 ("달리다굼", 아람어 보존의 결)
- 막 7:28 "상 아래 부스러기" ↔ 막 6:42 (오병이어의 풍성)
- 막 7:36 "이르지 말라" ↔ 막 1:44 / 5:43 (침묵 명령)
- 막 7:21 "마음에서 나오는 것" ↔ 막 12:30 (마음을 다하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따진다. 예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시고,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 봉양을 저버리는 전통을 짚으시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신다. 무리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의 악들을 풀어 주신다.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해 간구하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시고, 여인이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신다.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따로 데려가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에바다" 하시니 귀와 혀가 열린다. 막으실수록 더 전파되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에바다 — 전통과 부스러기와 열린 귀"
- 초벌 부제: "전통에서 마음으로, 부스러기에서 열린 귀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심"(19절)을 율법 폐지 논쟁으로 곤장 끌고 가지 않도록 → 본문의 덧붙인 풀이만 기록.
- "자녀와 개"(27절)를 민족 차별 논쟁으로 굳히지 않고 대화가 오간 경계만 보존.
- "에바다" 전의 탄식(34절)을 감정 해석으로 못박지 않고 동작·표현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7장은 씻음의 전통이 마음에게 자리를 내주고, 상 아래 부스러기가 경계를 넘어, 닫힌 귀에 "에바다"가 닿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손 씻음의 전통 논쟁에서 시작한다.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 봉양을 저버리는 전통을 짚어내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신다. 이어 이방 땅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 아래 부스러기"로 경계를 넘어 응수하고,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귀와 혀가 "에바다"로 열린다. 따지는 입에서 열리는 귀로, 유대의 논쟁에서 이방의 회복으로 넓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갈릴리 논쟁(1) → 두로(24) → 데가볼리(31). 소품 = 그릇·고르반·상 아래 부스러기·침과 손가락.
2 첫 느낌·분위기	따지는 앞과 따뜻한 뒤. "안과 밖" 구조. "전통"의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 입의 따짐(1). 끝 — 입과 귀의 회복(37). 따짐에서 놀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리새인·서기관 / 수로보니게 여인 / 귀먹은 사람. 사상 = 전통(paradosis)·마음(kardia)·"에바다"(Ephphatha).
5 장면 컷	컷 1 전통 논쟁(1-13). 컷 2 안에서 나오는 것(14-23). 컷 3 부스러기(24-30). 컷 4 에바다(31-35). 컷 5 전파(36-37).
6 의문·발견·정보	"숨으려"(24). 거절 같은 말(27). 침·손가락(33). 여시기 전 탄식(34).
7 동영상	전통 논쟁 → "속에서 나오는 것" → 부스러기 → "에바다" → 전파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에바다 — 전통과 부스러기와 열린 귀". 부제 — "전통에서 마음으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논쟁의 자리·두로·데가볼리를 걸으며 부스러기를 구하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밖과 안:** 손·그릇의 씻음(밖)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안)이 갈린다(15·20-23절). 더럽힘의 자리가 밖에서 안으로 옮겨진다.
- 결 2 — 상 아래 부스러기:** 거절 같은 말 앞에서 여인이 부스러기를 들어 응수한다(28절). 자녀의 떡과 개의 경계가 부스러기로 넘어진다.
- 결 3 — 탄식 뒤의 "에바다":** 귀를 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34절). 회복이 한숨을 지나 닫힌 귀에 닿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5:41** ("달리다굼", 아람어 보존), **막 6:42** (오병이어의 풍성), **막 1:44** (침묵 명령).
- 다른 권 — **사 29:13** (입술로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6-7절 인용), **레 11장** (음식 규례 배경).
- 정경 흐름 — 7장의 부스러기와 "에바다"는 8장의 사천 명·벧새다 맹인으로 이어지며, 이방을 향한 떡과 열림의 결을 넓혀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손 씻음을 따지는 논쟁의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상 아래 부스러기"의 응수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탄식 뒤 "에바다"가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씻음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상 아래 부스러기를 구하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손 씻음의 전통이 따짐을 부른다
- [x] "고르반"이 부모 봉양을 면하는 둘러댐으로 드러난다
- [x]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가 선포된다
- [x]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로 응수한다
- [x] 딸이 나음을 받는다
- [x] "에바다"에 귀와 혀가 열린다
- [x] 끝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의 놀람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야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이며, 그 통치는 권능의 증명으로 나타난다. 7장은 그 권능이 경계를 옮기는 자리다 — 더럽힘의 자리가 손(밖)에서 마음(안)으로, 떡의 자리가 자녀에서 이방으로 옮겨진다. 로마·이방인을 향해 쓰인 마가에게 이 장은 특히 중요한데, 두로 여인의 부스러기(28절)와 데가볼리의 "에바다"(34절)가 이방을 향한 떡과 열림을 미리 비추기 때문이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입술로만 공경하되 마음은 먼(사 29:13, 6-7절 인용) 거짓 거룩을 헐고 마음의 회복을 가리킴은, 거룩(Holiness)이 외적 규례가 아니라 마음에서 작동함을 보인다. 권능의 메시야가 안과 밖, 유대와 이방을 가르던 담을 낮추는 — 그 좌표에 7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밖의 따짐(paradosis·전통)→안의 회복(kardia·마음) / 손 씻음의 전통에서 마음과 부스러기와 열린 귀(Ephphatha)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전통에서 마음으로, 유대에서 이방으로 미는 운동이다. 전통 논쟁(1-13절) → 안에서 나오는 것(14-23절) → 두로 여인의 부스러기(24-30절) → "에바다"(31-35절) → 전파(36-37절). 더럽힘과 떡과 열림의 경계가 차례로 안으로, 밖으로 옮겨진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전통 논쟁과 두 치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경계를 옮기는 통치다.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귀신 들린 딸이 낫고 달힌 귀가 열리는 것이 보이지만, 대의(마음)의 층에서는 더럽힘이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진단이 사람의 안을 드러낸다.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자녀의 떡과 개의 경계, 달힌 귀의 경계가 무너져 이방을 향한 길이 열린다. 빙산의 수면 위는 논쟁과 치유지만, 아래는 외적 정결에서 마음의 회복으로, 유대의 담에서 이방의 부스러기로 옮겨지는 경계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28절)며 거절 같은 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옆드린 믿음이, 내 안에서 한 번 일어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상 아래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인 결과 "에바다"로 열리는 귀결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옆드림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에바다(Ephphatha).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닫힌 귀가 열리듯 둔한 눈이 두 번 만지심으로 밝히 보게 되고, 끝내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의 고백과 첫 수난 예고의 갈림길에 선다 — 책의 경첩.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8-13절)은 어떻게 갈리는가?

- "고르반"이 부모 봉양을 면하는 돌러댐으로 쓰임.
- 전통과 계명의 갈림만 기록, 적용은 보류.

Q2. 왜 두로에서 "숨으려"(24절) 하시는가?

- 이방 땅에 가서 숨으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음.
- 숨음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사실만 보존.

Q3. 여인에게 왜 거절 같은 말(27절)을 먼저 두시는가?

- "자녀의 떡을 개에게" 하신 뒤 부스러기의 응수가 옴.
- 대화의 순서만 기록, 의도는 보류.

Q4. 왜 침·손가락의 몸 동작(33절)을 쓰시는가?

- 말씀 한마디 대신 자세한 동작이 나옴.
- 동작만 기록,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5. "에바다" 전의 탄식(34절)은 무엇인가?

- 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
- 탄식의 결만 기록, 해석은 보류.

Q6. 막을수록 더 전파되는(36절) 까닭은?

- 경계하실수록 더 널리 퍼짐.
- 침묵 명령과 전파의 어긋남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8장

MRK-008 · 복음서 · 헬라어

떡을 두고 둔해진 눈이, 두 번 만지심을 지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와 첫 수난 예고의 갈림길에 선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옮겨감 — 빈 들(1절) → 달마누다(10절) → 배 안(13-14절) → 벳새다(22절) → 가이사랴 빌립보 길(27절).
- 소품 = 떡 일곱·작은 생선·일곱 광주리(5-8절), 누룩(15절), 침·손·눈(23절), 십자가(34절).
- 두 떡 사건의 셈 — 오천 명·열두 바구니 / 사천 명·일곱 광주리(19-20절).
- 벳새다 맹인의 두 단계 회복(23-25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6장과 닮은 빈 들·떡,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의 답답함, 뒤는 십자가의 무거움.
- "떡"이 본장 내내 울림(4·5·14·16·17·19절).
- 흐릿함(나무 같은 사람)에서 또렷함(밝히 봄)으로의 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또 빈 들의 큰 무리, "불쌍히 여기노니" — 떡의 채움으로 열림.
- 38절: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하리라" — 따름의 대가로 닫힘.
- 받음(채움)에서 짊어짐(십자가)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큰 무리(1) / 제자들(4) / 바리새인(11) / 벳새다 맹인(22) / 베드로(29·32) / 무리·제자(34).
- 두 갈래 사상 — 앞은 깨달음(17-21절), 뒤는 고백·수난(29·31절).
- 사상 = 떡(artos)·누룩(zyme)·표적(semeion)·그리스도(Christos)·"하야야 함"(dei)·십자가(stauros)·목숨(psyche).
- 고백한 베드로가 곧 꾸짖음을 받음(29 → 33절).
- 고백에 침묵 명령(30절), 수난 예고는 "드러내 놓고"(3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 빈 들, 떡 일곱, 사천 명, 일곱 광주리.
- 컷 2 (11-13): 표적을 구함, 심령의 탄식,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 컷 3 (14-21): 배 안, "누룩", "떡이 없다", 두 셈, "깨닫지 못하느냐".

- 컷 4 (22-26): 벧새다, 두 번 만지심, "나무 같은 사람" → 밝히 봄.
- 컷 5 (27-30): 가이사랴 빌립보 길,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 컷 6 (31-38): 첫 수난 예고, 베드로의 항변·꾸짖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6 – (1) 원어 카드

- artos(ἄρτος) — 떡. 4·5·14·16·17·19절.
- zyme(ζύμη) — 누룩. 15절 (바리새인·헤롯의 누룩).
- semeion(σημεῖον) — 표적. 11·12절.
- Christos(Χριστός) — 그리스도. 29절 (베드로의 고백).
- dei(δεῖ) — ~하여야 한다. 31절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함).
- stauros(σταυρός) — 십자가. 34절.
- psyche(ψυχή) — 목숨. 35·36·37절.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불쌍히 여기다. 2절.

6 – (2) 문학 구조

- 떡·깨달음(1-21) → 두 단계 봄(22-26) → 고백·수난(27-38)의 세 묶음.
- 두 떡 사건의 썸이 나란히(19-20절).
- 벧새다의 두 단계 회복이 베드로의 부분적 고백·꾸짖음과 나란히 놓임(흐릿함 → 또렷함).
- 고백(감춤, 30)과 수난(드러냄, 32)의 대비. 침묵 명령의 결이 또 이어짐.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누룩"(15절)은 작은 것이 전체에 퍼짐을 가리키는 소재 — 본문은 뜻을 곧장 풀지 않음. 배경으로만.
- 가이사랴 빌립보(27절)는 북쪽 이방 신전 지역 — 고백이 나온 자리의 배경. 배경으로만.
- "십자가"(34절)는 당시 사형 도구로, 짙어짐은 처형장으로 가는 길의 이미지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8:6-9 사천 명 ↔ 막 6:41-44 (오천 명, 떡 떼심)
- 막 8:29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 막 1: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 막 8:31 첫 수난 예고 ↔ 막 9:31 / 10:33-34 (두 번째·세 번째 예고)
- 막 8:34 "자기 십자가를 지고" ↔ 막 15:21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
- 막 8:18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 막 4:12 (보아도 알지 못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또 빈 들에 사흘째 함께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 떡 일곱으로 사천 명을 먹이시니 일곱 광주리가 남는다.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며 다투자 탄식하시며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배 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나 제자들은 떡 없음을 걱정하니, 두 떡 사건의 썸을 짚으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다. 벧새다에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 침과 안수로 만지시니 "나무 같은 사람"이 보이고, 다시 안수하시매 밝히 본다. 가이사랴 빌립보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한다. 침묵을 명하시고 드러내 놓고 수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신다. 무리를 불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잃으면 구원 하리라" 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두 번 만지심 — 떡과 누룩에서 십자가까지"
- 초벌 부제: "떡과 누룩에서 고백과 십자가까지, 결이 꺾이는 한가운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벧새다의 두 단계 회복(23-25절)을 제자 깨달음의 알레고리로 곧장 굳히지 않도록 → 두 봄의 단계만 기록, 겹침음은 보류.
- "누룩"(15절)의 뜻을 본문이 풀지 않으므로 임의로 채우지 않고 소재로만 보존.
- "사탄아 물러가라"(33절)를 인물 평가로 확장하지 않고 고백·항변·꾸짖음의 잇닿음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8장은 떡을 두고 둔해진 눈이 두 번 만지심을 지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와 첫 수난 예 고의 갈림길에 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또 빈 들의 떡으로 시작한다. 사천 명을 먹이고도 제자들은 "떡이 없다" 걱정하고, "아직도 깨 달지 못하느냐"는 물음이 답답하게 돈다. 벧새다의 맹인이 한 번에 낮지 않고 "나무 같은 사람"을 지나 밝히

보는 두 단계 회복을 받은 뒤, 가이사라 빌립보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한다. 곧 첫 수난 예고가 드러나고, 항변하던 베드로는 꾸짖음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무거운 부름이 책의 한가운데서 곁을 꺾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빈 들(1) → 달마누다(10) → 배 안(14) → 벧새다(22) → 가이사라 빌립보 길(27). 소품 = 떡 일곱·누룩·침·십자가.
2 첫 느낌·분위기	6장을 닳은 떡, 가운데의 답답함, 뒤의 무거움. 흐릿함에서 또렷함으로의 봄.
3 시작과 끝	시작 — "불쌍히 여기노니"의 채움(1-2). 끝 — 따름의 대가(38). 받음에서 짊어짐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큰 무리 / 바리새인 / 벧새다 맹인 / 베드로. 사상 = 떡(artos)·그리스도(Christos)·"하야 함"(dei)·십자가(stauros).
5 장면 컷	컷 1 사천 명(1-10). 컷 2 표적(11-13). 컷 3 누룩·셈(14-21). 컷 4 두 번 만지심(22-26). 컷 5 고백(27-30). 컷 6 수난 예고(31-38).
6 의문·발견·정보	두 단계 회복(23-25). "떡이 없다"의 둔함(16). 감춤(30)과 드러냄(32). 고백 뒤 꾸짖음(33).
7 동영상	떡과 둔함 → 두 번 만지심 → "주는 그리스도" → 수난 예고 → 십자가의 부름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두 번 만지심 — 떡과 누룩에서 십자가까지". 부제 — "곁이 꺾이는 한가운데".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빈 들·벧새다·가이사라 빌립보 길을 걸으며 "누구라 하느냐"의 물음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곁

- 결 1 — 떡을 두고 둔한 눈:** 두 번이나 떡이 풍성히 남았는데도 제자들은 "떡이 없다" 걱정한다(16-21절). 채움 곁에서 둔함이 자란다.
- 결 2 — 두 단계의 봄:** 벧새다 맹인이 "나무 같은 사람"을 지나 밝히 본다(23-25절). 흐릿함에서 또렷함으로의 봄이, 베드로의 부분적 고백·꾸짖음과 나란히 놓인다.
- 결 3 — 고백과 십자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29절) 바로 뒤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dei, 31절)가 온다. 고백이 곧장 십자가의 길로 꺾인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9:31 / 10:33-34** (둘째·셋째 수난 예고), **막 15:21** (십자가를 짐), **막 4:12** (보아도 알지 못함).
- 다른 권 — **사 53장** (고난받는 종의 곁, 배경), **출 16장** (만나·떡의 배경).
- 정경 흐름 — 8장은 마가복음의 경첩이다. 앞 절반(1-8장)의 떡·치유·논쟁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로 모이고, 뒤 절반(9-16장)의 수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연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또 빈 들, 떡을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나무 같은 사람"이 밝히 보이게 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곧 십자가의 길로 이어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길 위*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떡 일곱으로 사천 명이 먹는다
- [x]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가 선포된다
- [x] 떡이 남았는데도 제자가 둔하다
- [x] 벳새다 맹인이 두 번 만지심으로 밝히 본다
- [x]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한다
- [x] 첫 수난 예고와 꾸짖음이 잇따른다
- [x] 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숨김(메시아 비밀)에서 드러남(십자가)으로"이며, 그 통치는 권능의 증명으로 나타난다. 8장은 이 운동 전체의 경첩(hinge)이다. 복음서 4중주에서 마가는 역동적 메시아를 권능으로 비추되, 그 권능의 정체를 줄곧 가려 왔다 — 1장부터 귀신과 병자에게 "잠잠하라"."이르지 말라"고 거듭 함구를 명하였다. 그 숨김의 빗장이 8장에서 처음 풀린다.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Christos, 29절)가 나오는 순간, 곧 함구가 명해지고(30절) 첫 수난 예고(31절)가 따른다. 즉 메시아 비밀이 드러나는 방식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다. 앞 절반(1-8장)의 떡·치유·논쟁이 이 고백으로 모이고, 뒤 절반(9-16장)의 수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34절)가 연다. 5대 대명령 척추로 보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dei, 31절)는 거룩(Holiness)·통치(Reign)가 정복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십자가로 완성됨을 가리킨다. 책 전체가 방향을 트는 — 그 경첩의 좌표에 8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받음("불쌍히 여기노니"의 떡)→짚어짐(자기 십자가, stauros) / 숨겨졌던 메시아 비밀이 "주는 그리스도(Christos)"로 터지되, 그 드러남이 곧장 십자가로 꺾임(dei).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권능의 증명에서 십자가의 길로 방향을 트는 운동이다. 사천 명의 떡(1-10절) → 표적 요구(11-13절) → 누룩과 둔한 썸(14-21절) → 두 번 만지심의 봄(22-26절) → 베드로의 고백(27-30절) → 첫 수난 예고와 따름의 대가(31-38절). 숨김의 빗장이 풀리는 그 순간, 카메라가 갈릴리의 권능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돌아선다 — 마가복음의 경첩.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또 한 번의 급식·표적 거절·치유·고백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숨김에서 드러남으로 넘어가는 메시아 비밀의 빗장이다. 명의(현상)의 층에서는 벳새다 맹인이 "나무 같은 사람"을 지나 밝히 보는 것(23-25절)이 보이지만, 대의(마음)의 층에서는 그 두 단계의 봄이 베드로의 절반의 고백("그리스도"는 맞으나 십자가는 못 봄)을 그대로 비춘다. 신의(원인)의 층에서는, 줄곧 가려졌던 메시아됨이 처음 입에 오르되 곧 십자가로 묶이는 — 권능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임이 드러난다. 빙산의 수면 위는 고백이지만, 아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로 정의되는 메시아 됨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떡을 받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34절)는 부름으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35절)는 역설 앞에 서는 그 짙어짐이, 내 안에서 한 번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의 길 위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짙어짐의 갈림길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십자가(stauros).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십자가의 길로 돌아선 카메라가 곧 변화산으로 올라 — 가려졌던 영광이 잠시 드러나고, 다시 내려와 둘째 수난 예고로 그 길을 이어간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벧새다 맹인은 두 번 만지심(23-25절)으로 낮는가?

- 한마디로 고치시던 분이 여기선 단계를 두심.
- 두 단계만 기록, 까닭은 보류.

Q2. 떡이 두 번 남았는데 왜 "떡이 없다"(16절) 걱정하는가?

- 일곱 광주리가 남았는데도 둔함.
- 풍성과 둔함의 어긋남만 기록.

Q3. 왜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12절)며 탄식하시는가?

- 표적을 구하는 자리에서 심령으로 탄식하심.
- 탄식의 결만 기록, 해석은 보류.

Q4. 고백 직후 왜 침묵을 명하시는가(30절)?

-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바로 뒤에 말하지 말라 경고하심.
- 고백과 침묵의 잇닿음만 기록.

Q5. 수난 예고는 왜 "드러내 놓고"(32절) 하시는가?

- 고백은 감추게 하시고 수난은 드러내 놓으심.
- 감춤과 드러냄의 대비만 기록.

Q6. 고백한 베드로가 왜 곧 꾸짖음(33절)을 받는가?

-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 뒤 "사탄아 물러가라"가 옴.
- 고백과 꾸짖음의 잇닿음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9장

MRK-009 · 복음서 · 헬라어

산 위에서 옷이 희어지고,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친다. 영광과 무력함이 한 장에 맞붙는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높은 산(2절) → 산 아래 무리·변론(14절) → 갈릴리 통과(30절) → 가버나움 집(33절)으로 옮겨간다.
- 소품 = 흰 옷(3절, 빨래로 낼 수 없는 흰빛), 구름(7절), 말 못 하는 아이(17-18절), 어린아이(36절), 소금(49-50절).
- 등장 배경 인물 = 모세·엘리야(4절), 구름 속 소리(7절).
- geenna(43·45·47절)는 힌놈 골짜기 이름에서 온 말 — 배경 자료.
- "불로써 소금 치듯"(49절)·"소금을 두고 화목하라"(50절)가 끝의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산 위는 환함(흰빛), 산 아래는 답답함·소란. 밝음과 어둠이 바로 맞붙음.
- 제자들의 못 알아들음이 반복됨(10·32절) — 후렴 같은 결.
- 호칭("랍비여"·"선생님이여")은 많으나 말씀은 못 들음(5·7절의 어긋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 권능·나라로 열림.
-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 화목으로 닫힘.
- 산 위 영광에서 제자들의 함께 사는 자리로, 권능에서 화목으로 좁혀진다. 34절 "누가 크냐" 다툼이 가운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베드로·야고보·요한 / 모세·엘리야 / 구름 속 소리 / 나머지 제자 / 서기관 / 무리 / 아이와 아버지 / 요한이 말한 "따르지 않는 자"(38절).
- 본문이 상태를 직접 밝힘 — "무슨 말 할지 알지 못함이라 몹시 무서워하므로"(6절).
- 제자의 무력함 —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18절). 아버지의 외침 — "민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24절).
- 사상 = 큼·작음의 뒤집힘 —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35절), 어린아이 영접(3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2-8): 변형·흰 옷·모세·엘리야·초막·구름·"그의 말을 들으라".
- 컷 2 (9-13): 하산·함구령·엘리야 문답.
- 컷 3 (14-29): 못 고친 아이·"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기도 외에는".
- 컷 4 (30-32): 두 번째 수난 예고·못 알아들음·묻기 두려워함.
- 컷 5 (33-41): "누가 크냐"·어린아이·"따르지 않는 자" 문답.
- 컷 6 (42-50): 실족 경고·geenna·"불로 소금 치듯"·"화목하라".

6 — (1) 원어 카드

- metamorphoo(μεταμορφόω) — 변형되다, 형태가 바뀌다. 3절.
- rabbi(ῥαββί) — 랍비·선생. 5절(베드로의 호칭).
- skene(σκηνή) — 초막·장막. 5절.
- pisteuo(πιστεύω) / apistia(ἄπιστία) — 믿다 / 믿음 없음. 24절에 나란히.
- boetheo(βοηθέω) — 돕다(다급한 외침). 24절 "도와주소서".
- diakonos(διάκονος) — 섬기는 자. 35절.
- geenna(γέεννα) — 지옥(힌놈 골짜기). 43·45·47절.
- halas(ἄλας) — 소금. 49·50절.

6 — (2) 문학 구조

- 산 위(2-13) → 산 아래(14-29) → 길·집(30-50)의 세 묶음.
- 두 번째 수난 예고(31절) — 8:31, 10:33-34과 더불어 세 번 반복되는 후렴.
- 못 알아들음 후렴 — 10절(서로 물의), 32절(묻기 두려워).
- 실족 경고의 반복 어구 — "찍어 버리라"(43·45절), "빠버리라"(47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48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geenna는 예루살렘 남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이름에서 온 말 — 배경으로만.
- "소금"(49-50)은 제사·일상의 보존·맛과 닿는 단어 — 배경만 기록.
- "엘리야가 이미 왔다"(13절)는 본문 자체의 진술로, 인물 문답으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9 ↔ 막 8:31 / 10:33-34 (세 번의 수난 예고)
- 막 9:7 "그의 말을 들으라" ↔ 신 18:15 (한 선지자를 들으라, 배경)
- 막 9:35 ↔ 막 10:43-44 (첫째·섬기는 자, 큼·작음의 뒤집힘 재등장)
- 막 9:48 ↔ 사 66:24 (구더기·불, 인용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옛새 후, 세 제자와 높은 산에 오르신다. 형태가 바뀌고 옷이 빨래로 낼 수 없는 흰빛이 된다.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하고, 베드로가 무서움 가운데 초막 셋을 말한다. 구름이 덮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난다. 내려와 보니 산 아래엔 변론이 한창이고, 한 아버지가 말 못 하는 아이를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어느 때까지 함께 있으리요" 하신 뒤, 아버지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치고, 아이가 죽은 것 같다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난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하시고, 길에서 두 번째로 죽음과 살아남을 말씀하시나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 가버나움 집에서 "누가 크냐" 다툰 것을 두고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실족 경고와 함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로 닫으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흰 옷과 떨리는 외침 —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 초벌 부제: "산 위의 빛에서 산 아래의 떨림으로, 그리고 화목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변형(2-8)이 영광 신학으로 굳지 않도록 → metamorphoo·흰 옷·구름 소리의 위치만 기록.
- 24절 "믿나이다/믿음 없는 것"의 긴장은 pisteuo/apistia 어휘 병치로만 보존, 관계는 보류.
- geenna·소금(43-50)의 강한 표현을 교리 단정으로 굳히지 않고 반복 어구와 배경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9장은 산 위의 흰빛과 산 아래의 떨리는 외침이 한 장에 맞붙는 장이다.

한 문단: 높은 산에서 그분의 형태가 바뀌고 옷이 빨래로 낼 수 없는 흰빛이 된다. 그러나 산을 내려오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아이와, "민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치는 한 아버지가 기다린다. 영광과 무력함이 바로 맞닿는다. 이어 길과 집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로 뒤집히고, 강한 실족 경고 끝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가 장을 닫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높은 산(2) → 산 아래(14) → 갈릴리(30) → 가버나움 집(33). 소품 = 흰 옷·구름·아이·소금. geenna(43-47).
2 첫 느낌·분위기	산 위 환함, 산 아래 답답함. 못 알아들음의 반복. 호칭은 많으나 말씀은 못 들음.
3 시작과 끝	시작 — 권능·나라(1절). 끝 — 화목(50절). 영광에서 함께 사는 자리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세 제자·모세·엘리아·아이와 아버지. 무력함(18)과 외침(24). 사상 = 큼·작음의 뒤집힘(35:37).
5 장면 컷	컷 1 변형(2-8). 컷 2 하산(9-13). 컷 3 못 고친 아이(14-29). 컷 4 수난 예고(30-32). 컷 5 누가 크냐(33-41). 컷 6 실족·소금(42-50).
6 의문·발견·정보	"들으라"와 "초막"의 어긋남. "기도 외에는"(29). 세 번 수난 예고. 못 고침과 막음의 병치. pisteuo/apistia.
7 동영상	흰빛 산 → 떨어지는 외침 → 일으키심 → 길의 예고 → 누가 크냐 → 화목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흰 옷과 떨어지는 외침 — 민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제 — "산 위의 빛에서 산 아래의 떨림으로, 그리고 화목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산과 무리와 집을 걸으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리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산 위와 산 아래의 맞붙음:** 흰빛 영광(2-3절) 바로 뒤에 못 고친 아이(18절)가 놓인다. 영광과 무력함이 한 장에 붙는다.
- 결 2 — 한 입의 믿음과 믿음 없음:** "민나이다"(pisteuo)와 "믿음 없는 것"(apistia)이 24절 한 문장에 나란하다.
- 결 3 — 큼이 끝으로 뒤집힘:** "누가 크냐"(34절)는 다툼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35절)로 뒤집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8:31·막 10:33-34** (세 번의 수난 예고), **막 10:43-44** (첫째·섬기는 자 재등장).
- 다른 권 — **신 18:15** (한 선지자를 들으라, 배경), **사 66:24** (구더기·불, 48절 결).
- 정경 흐름 — 9장의 변형과 수난 예고는 마가복음 후반(8-10장)의 "올라가는 길"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흰빛 산 아래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침에서 멈춘다.

- **멈춤 3:** "누가 크냐" 다툼이 뒤집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영광과 무력함은 한 장에 함께 있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민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외침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 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높은 산에서 형태가 바뀌고 옷이 흰빛이 된다
- [x] 구름 속 소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이다
- [x] 산 아래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
- [x]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친다
- [x] 두 번째로 죽음과 살아남을 말씀하신다
- [x] "누가 크냐" 다툼이 "끝이 되라"로 뒤집힌다
- [x] 끝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아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역동적 메시아의 권능이 증명되되, 그 영광이 부활 이전엔 봉인되는 호(arc)다. 가장 이른 복음서로서 즉시성(euthys, 곧)으로 사건을 잇대며, 누가 그분인지를 권능으로 보이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로 덮는다. 9장은 그 호의 **경첩(hinge)**이다. 변화산 위에서 형태가 바뀌고 옷이 흰빛이 된 영광이 세 제자에게 잠시 드러나지만(2-3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함구령이 즉시 그 빛을 봉인한다(9절). 둘째 수난 예고(31절)가 십자가로 길을 트고, 산 아래의 못 고침과 갈라진 믿음이 영광 바로 곁에 놓인다. 권능의 정점(산 위)과 십자가의 길(산 아래)이 한 장에서 맞물리는 — 그 경첩에 9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 위의 드러난 흰빛(영광)→산 아래의 무력함을 지나 십자가의 길로 / 머무는 영광("초막 셋")→걸어 내려가는 섬김("끝이 되라").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드러난 영광에서 감추인 수난으로 미는 운동이다. 흰빛의 변형(2-3절) →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 소리(7절) → 곧장 덮으시는 함구령(9절) → 산 아래 못 고치는 제자들과 갈라진 믿음(18:24절) → 둘째 수난 예고(31절) → "끝이 되라"·어린아이로 뒤집힌 큼(35-37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드러남이 다시 숨음을 지나 십자가를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흰빛·하늘 소리·축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권능이 무력함의 자리로 내려와 갈라진 믿음을 회복하는 통치**다. 산 위의 영광을 본 자리가 아니라, 산 아래 못 고친 무력함의 자리에서 "민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24절)라는 한 아버지의 갈라진 믿음이 권능을 만난다. 메시아의 권능은 증명을 위한 증명이 아니라, 그 갈라진 자리로 내려와 회복하는 통치다. 빙산의 수면 위는 변형의 흰빛이지만, 아래는 영광이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 무력한 자를 품는 통치다. "누가 크냐"가 "끝이 되라"로 뒤집히는 것(35절)도 이 내려감의 걸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권능을 다 본 자리가 아니라, 못 믿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능력이 임한다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마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산 위 영광의 구경꾼이 아니라 산 아래 갈라진 믿음의 아버지 곁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인정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섬기는 자.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산 아래에서 트인 십자가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다음 장 "많은 사람의 대속물"(10:45)로 깊어지며, 길 위에서 받아들임과 비움이 줄지어 놓인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베드로의 "초막 셋"(5절)과 "그의 말을 들으라"(7절)는 왜 어긋나는가?

- 본문은 "무슨 말 할지 알지 못함이라"(6절)로 상태만 밝힌다.
- 들으라는 말과 짓궂다는 말의 어긋남만 기록.

Q2.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29절)은 왜 더해졌는가?

- 제자들이 "어찌하여 못 쫓아내었나이까"(28절) 물은 뒤의 답.
- 기도와 못 함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3. 두 번째 수난 예고(31절)를 제자들이 왜 묻기를 두려워했는가?

- "알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더라"(32절)로만 기록됨.
- 두려움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누가 크냐" 다툼과 어린아이 영접(34-37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높아지려는 다툼 뒤에 가장 작은 자를 세우심.
- 큼과 작음의 뒤집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못 고친 제자들(18절)과 남을 금한 제자들(38절)은 왜 가까이 놓이는가?

- 무력함과 막음이 한 장 안에 나란히.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6. "불로 소금 치듯"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49-50절)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불·소금의 강한 결 뒤에 화목의 말이 옴.
- 두 결의 이어짐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10장

MRK-010 · 복음서 · 헬라어

어린아이는 받아들여지고 부자는 슬퍼 떠난다. 길 위에서 "섬기는 자"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말해지고, 맹인이 보게 된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유대 지경·요단 건너편(1절) →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32절) → 여리고(46절)로 옮겨간다.
- 소품·몸짓 =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16절),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21절), 바디매오의 겂옷(50절).
- 재물이 소재 = 슬픈 기색(22절), 낙타와 바늘귀(25절).
- 배경 제도 = 모세의 이혼 증서(4절). 창조 인용 = 창 1:27 / 창 2:24(6-8절).
- 이름·호칭 = "선한 선생님"(17절), "다윗의 자손"(47절), "랍오니"(51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다가옴과 멀어짐의 변갈음 — 안긴 아이 vs 슬퍼 떠난 부자.
- "길"이 줄곧 깔림(17·32·46절) — 걸어가는 분위기.
- 받아들임과 비움이 짝처럼 반복(15·21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또 가르치시더니" — 무리·가르침으로 열림.
- 52절: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 따르는 한 사람으로 닫힘.
- 무리에서 한 사람으로, 가르침에서 따라나섬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51)와 끝의 봄·따름이 만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바리새인 / 무리 / 어린아이와 막는 제자 / 달려온 부자 / 베드로 / 야고보·요한 / 열 제자 / 바디매오.
- 본문이 감정을 직접 밝힘 — "노하시어"(14절), "보시고 사랑하사"(21절).
- '들어감'을 두고 갈림 — 어린아이같이 받들(15절) vs 재물 있는 자의 어려움(23절).
- 사상 = 큼·작음의 뒤집힘 재등장(43-44절) + 대속물(45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이혼 논쟁·모세 증서·완악함·창조 인용.
- 컷 2 (13-16): 어린아이·막음·"용납하라"·안고 축복.
- 컷 3 (17-31): 부자·"선한 선생님"·"가서 팔라"·슬퍼 떠남·낙타와 바늘귀.
- 컷 4 (32-34): 세 번째 수난 예고(가장 자세)·놀람·두려움.

- 컷 5 (35-45): 좌우편 청·잔과 세례·분노·"섬기는 자"·"대속물".
- 컷 6 (46-52): 바디매오·"다윗의 자손"·겉옷 던짐·"보기를 원하나이다"·봄과 따름.

6 – (1) 원어 카드

- apolyo(ἀπολύω) — 버리다·이혼하다. 2·4·11-12절.
- sklerokardia(σκληροκαρδία) — 마음의 완악함·굳은 마음. 5절.
- paidion(παιδίον) — 어린아이. 13-15절.
- agathos(ἀγαθός) — 선하다. 18절 "선한 선생님".
- kamelos(κάμηλος) — 낙타. 25절.
- lytron(λύτρον) / anti(ἀντί) — 대속물(풀어주는 값) / 대신하여. 45절.
- Bartimaios(Βαρτίμαιος) — 바디매오(바=아람어 '아들'). 46절.
- rabbouni(ῥαββουνί) — 나의 선생·랍오니. 51절.

6 – (2) 문학 구조

- 받아들임(13-16) ↔ 비움(17-31)의 짝, 섬김(35-45) ↔ 봄(46-52)의 짝.
- 세 번째 수난 예고(32-34) — 8:31, 9:31에 이은 셋째이며 가장 자세함.
- "들어가다"의 반복 — 15·23·24·25절(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 수난 예고(34) 직후 좌우편 청(37)이 잇대어 놓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모세의 "이혼 증서"(4절, 신 24:1 절)는 당시 제도 — 배경으로만.
- "낙타와 바늘귀"(25절)는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의 대비 표현 — 어휘 대비만 기록.
- "잔과 세례"(38-39절)는 본문 안의 비유적 표현 — 인물 대화로 기록, 의미는 보류.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0:6-8 ↔ 창 1:27 / 창 2:24 (창조 인용)
- 막 10:4 ↔ 신 24:1 (이혼 증서, 배경)
- 막 10:43-45 ↔ 막 9:35 (큼·종의 뒤집힘 재등장)
- 막 10:47 ↔ 막 12:35-37 ("다윗의 자손" 결의 재등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요단 건너편에 무리가 모이고, 바리새인이 이혼을 물으며 시험한다. 모세의 증서를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 하시며 창조의 두 구절을 잇대신다.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보고 노하시며 "용납하라" 하시고 안아 축복하신다. 한 사람이 달려와 "선한 선생님" 하며 영생을 묻고, 보시고 사랑하사 "가서 팔라" 하시나 재물이 많아 슬퍼 떠난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하신다. 예루살렘 길에 앞서 가시며 세 번째로 죽음과 살아남을 자세히 말씀하신다. 야고보·요한이 좌우편을 청하자 잔과 세례를 물으시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하신다. 여리고를 나가실 때 맹인 바디매오가 외치고, 겉옷을 던지고 일어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른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안긴 아이와 슬퍼 떠난 사람 — 많은 사람의 대속물"
- 초별 부제: "받아들여진 아이에서 슬퍼 떠난 부자로, 그리고 보게 된 따라나섬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이혼 논쟁(1-12)을 규범 판결로 굳히지 않고 apolyo·sklerokardia·창조 인용의 위치만 기록.
- 45절 "대속물"(lytron)을 구원론으로 미리 풀지 않고 큼·중·대속물의 어휘 모임만 보존.
- "낙타와 바늘귀"(25)를 비유 해설로 늘리지 않고 대비 어휘만 기록,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받아들임과 비움, 섬김과 봄이 줄지어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이혼 논쟁으로 열린 길은 어린아이를 안아 축복하는 자리로, 또 재물 앞에 슬퍼 떠나는 한 사람의 자리로 이어진다. 세 번째이자 가장 자세한 죽음의 말 바로 뒤에 좌우편 자리를 청하는 다툼이 오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말이 놓인다. 길의 끝에서 맹인 바디매 오가 겘옷을 던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치니, 보게 되어 길에서 따라나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요단 건너편(1) → 길(32) → 여리고(46). 소품 = 안긴 아이·재물·겂옷. 모세 증서·창조 인용(6-8).
2 첫 느낌·분위기	다가옴과 멀어짐의 번갈음. "길"이 줄곧 깔림. 받아들임과 비움의 짝.
3 시작과 끝	시작 — 무리·가르침(1절). 끝 — 보고 따름(52절). 무리에서 한 사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리새인·아이·부자·야고보·요한·바디매오. "노하시어"(14)·"사랑하사"(21). 사상 = 섬김·대속물(43-45).
5 장면 컷	컷 1 이혼(1-12). 컷 2 어린이(13-16). 컷 3 부자(17-31). 컷 4 수난 예고(32-34). 컷 5 좌우편·섬김(35-45). 컷 6 바디매오(46-52).
6 의문·발견·정보	"선하다" 되물음(18). "사랑하사"와 "팔라"(21). 가장 자세한 수난 예고(34). 수난 직후 좌우편 청(37).
7 동영상	이혼 논쟁 → 안긴 아이 → 슬퍼 떠남 → 길의 예고 → 섬김·대속물 → 보고 따름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안긴 아이와 슬퍼 떠난 사람 — 많은 사람의 대속물". 부제 — "받아들여진 아이에서 슬퍼 떠난 부자로, 그리고 보게 된 따라나섬으로".
9 동영상 안건·기도	길과 여리고를 걸으며 겂옷을 깎 바디매오 곁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받아들임과 비움의 짝:** 어린아이는 안기고(16절), 부자는 슬퍼 떠난다(22절). 둘이 가까이 놓인다.
- 결 2 — 죽음의 말 결의 자리 다툼:** 가장 자세한 수난 예고(34절) 바로 뒤에 좌우편 청(37절)이 온다.
- 결 3 — 섬김과 봄으로 닫힘:** "섬기는 자가 되라"(43절)와 대속물(45절) 뒤에 "보기를 원하나이다"(51절)가 길을 닫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8:31·막 9:31** (세 번의 수난 예고), **막 9:35** (큼·종의 뒤집힘).
- 다른 권 — **창 1:27 / 창 2:24** (창조 인용, 6-8절), **신 24:1** (이혼 증서, 배경).
- 정경 흐름 — 10장은 "올라가는 길"(8-10장) 묶음의 마지막으로, 다음 장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길 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어린아이가 안기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부자가 슬퍼 떠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섬기는 자가 되라"·"대속물" 말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길은 섬김과 봄으로 닫힌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외침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이혼 논쟁에서 창조주의 두 구절이 잇대어진다
- [x] 어린아이가 안기어 축복받는다
- [x] 부자가 재물 앞에 슬퍼 떠난다
- [x] 세 번째 수난 예고가 가장 자세하다
- [x]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가 말해진다
- [x]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말해진다
- [x] 바디매오가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른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야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권능으로 증명된 메시야가 끝내 십자가에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호(arc)다. 10장은 그 호의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 국면이다. 8-10장에 세 번 거듭된 수난 예고 중 가장 자세한 셋째 예고(33-34절)가 여기 놓이고, 그 끝에 "인자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lytron)로 준다"(45절)는 한 절이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푼다. 권능의 메시야가 왜 죽음을 향해 올라가는지 — 그 까닭이 "섬김"과 "대속물"로 처음 또렷해진다. 이혼 논쟁에서 끌어온 창조 인용(6-8절)은 태초의 질서를, 어린아이 축복(13-16절)은 받아들임의 길을 연다. 길의 끝 바디매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로 보게 되어 길에서 따라나서는 — 그 자리에서 10장이 다음 장 예루살렘 입성으로 넘어간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움켜잡(슬퍼 떠난 부자)→내어 줌("많은 사람의 대속물", 45절) / 슬퍼 떠나는 등→보고 따르는 걸음(52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쥐는 손에서 비우는 손으로 미는 운동이다. 이혼 논쟁 → 안기어 받아들여지는 어린아이(16절) → 재물 앞에 슬퍼 떠남(22절) → 가장 자세한 수난 예고(34절) → "섬기는 자가 되라"·대속물(43-45절) → 걸음을 던지고 보게 되어 따름(52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가진 것을 쥐려는 손이 내어 주는 손을 향해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논쟁·축복·치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비우는 자리에 임하는 통치, 섬김으로 값을 치르는 메시야다. 받아들여지는 자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고(15절), 비우지 못해 멀어지는 자는 가진 것 많은 부자다(22절). 통치의 길은 좌우편 영광이 아니라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43-44절)로 뒤집힌다. 그 뒤집힘의 진원에 "대속물"(lytron, 45절)이 있다 — 권능의 메시야가 군림이 아니라 값을 치러 풀어 주는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 준다. 병산의 수면 위는 길 위의 사건들이지만, 아래는 군림을 섬김으로 뒤집는 통치, 비운 손에 임하는 나라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가진 것을 다 가진 자리가 아니라 걸음을 던지고 비운 자리에서 보게 된다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마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슬퍼 떠난 부자의 등과 걸음을 던진 바디매오의 걸음 사이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비움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올라감.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올라가던 길이 마침내 예루살렘 입성으로 — "섬기는 자"로 올라오신 분이 겔옷 깃의 "호산나" 함성 속에 들어가, 곧 앞만 무성한 나무와 엮어진 성전 앞에 서신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18절)는 왜 되물으심인가?

- 청년의 "선한 선생님"이라는 부름을 곧장 받지 않으심.
- 되물으심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보시고 사랑하사"(21절)와 "가서 팔라"는 어떻게 함께인가?

- 사랑의 시선과 비움의 명이 한 문장에 놓임.
- 둘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3. 수난 예고(34절) 직후 좌우편 청(37절)이 왜 잇대어지는가?

- 죽음의 말 바로 다음에 자리 다툼이 옴.
- 잇댐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잔과 세례"(38-39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본문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나이다" 답한 것까지만 기록.
- 가리키는 바는 묵상으로 이월, 보류.

Q5. 어린아이같이 받들(15절)과 부자의 비움(21절)은 어떻게 한 결인가?

-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이 가까이 놓임.
- 한 결인지 두 결인지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바디매오는 왜 "겔옷을 내버리고"(50절) 일어났는가?

- 부름에 던지는 동작만 기록됨.
- 겔옷을 버린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11장

MRK-011 · 복음서 · 헬라어

겉옷을 깐 길로 들어가신 분이 앞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엮으신다. 겉모습과 열매 사이에 성전이 끼어 있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감람 산 벳바게·베다니(1절) → 예루살렘 성전(11·15절) → 다시 성전(27절). 베다니로 두 번 나가셨다 돌아옴.
- 소품 = 나귀 새끼(2절), 겉옷·나뭇가지(7-8절),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13절), 돈 바꾸는 상·비둘기 의자(15절).
- 시간 = "이튿날"(12절), "저물때"(19절), "그 이튿날 아침"(20절) — 사흘 흐름.
- 인용 배경 = 사 56:7("만민이 기도하는 집") / 렘 7:11("강도의 소굴")(17절), 시 118편 곁(9-1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환호("호산나")로 열리나 곧 저주·엮으심으로 무거워짐.
- 무화과나무가 앞(14절)·뒤(20절)로 갈라져 옴.
- 나무가 성전을 감싸는 액자 분위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 입성으로 열림.
- 33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 권위 물음의 거절로 닫힘.
- 함성의 입성에서 잠긴 대답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앞뒤가 묶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두 제자 / 나귀 주인 / 길에 깐 무리 / 사고파는 자 / 대제사장·서기관(18절) / 베드로(21절) / 장로들(27절).
- 상황 = 겉과 열매의 대비 — 앞만 무성한 나무(13절),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17절).
- 17절 두 인용 잇뎀 — "만민이 기도하는 집" / "강도의 소굴".
- 마른 나무 뒤 = 믿음·기도·용서(22-25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나귀 새끼·겉옷·"호산나"·성전 둘러봄·베다니로.
- 컷 2 (12-14): 앞만 무성한 나무·저주.
- 컷 3 (15-19): 성전 정화·상과 의자·두 인용·죽일 모의.

- 컷 4 (20-21): 뿌리째 마른 나무·베드로 외침.
- 컷 5 (22-26): "하나님을 믿으라"·산 옮김·기도·용서.
- 컷 6 (27-33): 권위 물음·요한의 세례 되물음·"알지 못하노라"·거절.

6 – (1) 원어 카드

- hosanna(ὡσαννά) — 호산나(히브리어 "구원하소서" 결). 9-10절.
- polos(πῶλος) — 나귀 새끼. 2절.
- hieron(ἱερόν) — 성전. 11·15·27절.
- oikos(οἶκος) / proseuche(προσευχή) — 집 / 기도. 17절 "기도하는 집".
- leston(ληστῶν) — 강도들의. 17절 "강도의 소굴".
- syke(συκῆ) — 무화과나무. 13·20-21절.
- pistis(πίστις) — 믿음. 22절.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위. 28·29·33절.

6 – (2) 문학 구조

- 나무(12-14) — 성전(15-19) — 나무(20-26)의 액자 구조.
- 시간 표지의 사흘 흐름 — "이튿날"·"저물매"·"그 이튿날 아침".
- 17절 두 구절 잇댄 인용(사 56:7 / 렘 7:11).
- 끝 단락의 되물음 구조 — 묻는 자가 도리어 답을 못함(30-33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무화과의 때가 아님"(13절)은 본문 자체의 진술 — 정보로 기록.
- 성전 뜰의 환전·제물 매매는 당시 절기 관행 — 배경으로만.
-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9-10절)는 시 118편 결의 외침 — 인용 관계는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1:17 ↔ 사 56:7 / 렘 7:11 (두 구절 잇댄 인용)
- 막 11:9-10 ↔ 시 118:25-26 (호산나·축복 결)
- 막 11:12-21 ↔ 막 13:28-29 (무화과나무 결의 재등장)
- 막 11:28 ↔ 막 1:22·27 ("권위"의 결, 앞 장과 이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감람 산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와 타시니, 무리가 겔옷과 가지를 펴고 "호산나" 외친다.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 시고 저물어 베다니로 나가신다. 이튿날,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신다. 성전에 들어가 상과 의자를 옆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말씀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죽일 모의를 한다. 그 이튿날 아침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고, 베드로의 외침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며 기도하고 용서를 말씀하신다. 다시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하느냐"는 물음에 "요한의 세례"를 되물으시니, 그들이 "알지 못하노라" 하고,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로 답으신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잎만 무성한 나무와 엮어진 성전 — 만민이 기도하는 집"
- 초별 부제: "겉옷 깎 길에서 엮어진 성전으로, 그리고 마른 나무 곁의 기도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무화과나무 저주(12-14·20-21)를 알레고리로 미리 풀지 않고 잎·열매·때의 어휘 위치만 기록.
- 성전 정화(15-19)를 제도 비판 담론으로 늘리지 않고 두 인용(사 56:7 / 렘 7:11)의 잇뎀만 보존.
- 22-25절 믿음·기도·용서를 약속 공식으로 굳히지 않고 마른 나무 뒤 어휘 모임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1장은 겉옷 깎 길의 함성과 잎만 무성한 나무 사이에 엮어진 성전이 끼어 있는 장이다.

한 문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길은 "호산나" 함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튿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상과 의자를 엮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말씀하신다. 본문은 나무로 성전을 감싸는 액자를 만들고, 마른 나무 곁에서 믿음·기도·용서를 말씀하신 뒤, 권위 물음에 되물으심으로 잠긴 대답을 남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감람 산(1) → 성전(11·15) → 성전(27). 소품 = 나귀 새끼·겔옷·잎만 무성한 나무·엮어진 상. 두 인용(17).
2 첫 느낌·분위기	환호에서 무거움으로. 나무가 앞뒤로 갈라짐. 액자 분위기.
3 시작과 끝	시작 — 입성(1절). 끝 — 권위 물음 거절(33절). 함성에서 잠긴 대답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두 제자·무리·사고파는 자·대제사장·베드로·장로. 겔과 열매의 대비(13·17). 마른 나무 뒤 믿음·기도·용서(22-25).
5 장면 컷	컷 1 입성(1-11). 컷 2 나무 저주(12-14). 컷 3 성전 정확(15-19). 컷 4 마른 나무(20-21). 컷 5 믿음·기도(22-26). 컷 6 권위 물음(27-33).
6 의문·발견·정보	첫날 둘러보심(11). "때가 아님"(13). 두 인용 잇뎀(17). 죽일 모의와 놀람(18). 되물음(30).
7 동영상	"호산나" → 잎만 무성한 나무 → 엮어진 성전 → 마른 나무 → 믿음·기도 → 잠긴 권위 물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잎만 무성한 나무와 엮어진 성전 — 만민이 기도하는 집". 부제 — "겔옷 깐 길에서 엮어진 성전으로, 그리고 마른 나무 결의 기도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겔과 성전과 마른 나무 결을 걸으며 겔과 열매를 들여다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나무가 성전을 감쌌:** 저주(12-14절)와 마른 나무(20-21절) 사이에 성전 정확(15-19절)가 끼인다. 액자다.
2. **결 2 — 겔과 열매의 대비:**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나무(13절)와,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17절)이 나란하다.
3. **결 3 — 묻는 자가 답을 못 함:** 권위를 묻던 자들이 "알지 못하노라"(33절)로 잠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3:28-29** (무화과나무 결의 재등장), **막 1:22·27** ("권위"의 결).
- 다른 권 — **사 56:7 / 렘 7:11** (두 인용, 17절), **시 118:25-26** (호산나, 9-10절).
- 정경 흐름 — 11장의 성전 사건은 12-13장의 성전 논쟁과 멸망 예고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겔옷 깐 길에서 함성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잎만 무성한 나무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엮어지는 상과 의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뿌리째 마른 나무 결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겔모습과 열매 사이에 성전이 끼어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함성 속에 들어가신다
- [x]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다
- [x] 성전의 상과 의자를 엮으신다
- [x] "만민이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을 말씀하신다
- [x]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다
- [x] 마른 나무 곁에서 믿음·기도·용서를 말씀하신다
- [x] 권위 물음에 되물으심으로 답을 미루신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야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권능의 메시야가 끝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호(arc)다. 11장은 그 호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서는 문턱이다. "올라가는 길"(8-10장)이 마침내 입성(1-11절)으로 도착하고, 그분의 권능이 이제 성전을 향한다. 나귀 새끼를 타신 입성은 메시야의 오심을 드러내되, 곧 잎만 무성한 나무 저주(12-14절)와 성전 정화(15-19절)가 그 오심이 무엇을 묻는지를 보인다. 17절의 두 인용("만민이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은 성전의 본래 자리와 어긋난 자리를 본문 안에서 겹쳐 놓는다.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미루심(33절)은 메시야 비밀의 걸을 다시 잇는다. 환호와 심판이 한 장에 겹치는 — 그 문턱에 11장이 서서 12-13장의 성전 논쟁과 멸망 예고로 길을 튼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걸의 무성함(잎만 무성한 나무)→열매의 물음(뿌리째 마름) / 환호의 길→마른 나무 곁의 기도("만민이 기도하는 집", 1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무성한 곁에서 찾으시는 열매로 미는 운동이다. "호산나" 함성의 입성(9절) → 잎만 무성한 나무(13절) → 엮어진 성전의 상과 의자(15절) → 뿌리째 마른 나무(20절) → 믿음·기도·용서(22-25절) → 잠긴 권위 물음(33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무성한 곁을 향한 열매의 물음이 점점 무거워지며 본래 자리를 가리키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입성·저주·엮어짐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걸의 무성함을 꿰뚫어 열매를 찾으시는 통치**다. 잎만 무성한 나무도, 장사로 분주한 성전도 걸은 가득한데 정작 찾는 열매와 기도가 없다. 나무가 성전을 앞뒤로 감싸는 액자(12-21절)는, 성전의 분주함을 잎만 무성한 나무에 비추어 읽게 한다. 회복되는 것은 거창한 제의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래 자리, 곁과 속이 맞는 자리다. 빙산의 수면 위는 권능의 표적이지만, 아래는 걸을 꿰뚫어 열매·기도를 찾으시는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분주한 잎이 아니라 찾으시는 열매·기도가 있는 자리로 부르는 그 운동이, 내 안의 잎과 열매를 들여다보는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잎만 무성한 나무 곁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 앞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곁과 속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성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얽어진 성전이 곧 잇따른 물음의 무대로 — 성전 뜰에서 악한 농부 비유와 세금·부활·계명의 물음이 줄지어 서고, 끝에 한 과부의 두 램돈이 묻는 자들 곁에 놓인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입성 첫날 둘러보고 그냥 나가심(11절)은 무엇을 남기는가?

- 본문은 둘러보고 저물어 나가심만 기록.
- 첫날의 머무름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무화과의 때가 아님"(13절)인데 열매를 찾으심은?

- 본문이 때가 아님을 직접 밝힘.
- 때와 저주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3.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17절)은 어떻게 한 문장인가?

- 두 인용이 한 문장에 잇대어짐.
- 잇댐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보류.

Q4. 마른 나무(20절) 뒤에 믿음·기도(22-25절)가 왜 붙는가?

- 나무 다음에 기도와 용서가 옴.
- 둘의 이어짐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5. 죽일 모의(18절)와 무리의 놀람은 왜 같이 오는가?

- 모의와 놀람·두려움이 한 절에 놓임.
- 둘의 병치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권위 물음에 되물으심(30절)으로 답을 미루심은?

- 묻는 자가 도리어 "알지 못하노라" 함.
- 되물음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12장

MRK-012 · 복음서 · 헬라어

포도원과 머릿돌로 시작해 세금·부활·계명의 물음이 잇따르고, 끝에 한 과부가 가진 전부를 넣는다. 묻는 자들 곁에 한 사람의 전부가 놓인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전 뜰 — 가르치심(35절)과 헌금함 앞(41절).
- 비유의 소품 = 포도원·올타리·줍 짜는 틀·망대(1절), 보내진 종들과 아들(2-6절).
- 문답의 소품 =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15-16절), 일곱 형제(20절).
- 끝 장면 소품 = 부자들의 많은 돈과 과부의 두 렵돈(한 고드란트)(42절).
- 인용 출처 = 시 118(10-11), 출 3:6(26), 신 6:4-5(29-30), 시 110(36).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잇따른 물음·답의 연속, 끝에서 고요해짐(과부).
- 묻는 자가 바뀌며 줄을 섬(13·18·28절).
- 큰 돈(데나리온)과 가장 작은 돈(렵돈)이 한 장에 함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 비유로 열림.
- 44절: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 한 과부의 전부로 닫힘.
- 비유에서 한 사람의 전부로, 물음에서 바라봄으로. 묻는 자들과 행하는 한 사람이 끝에서 만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비유 속 주인·농부·종·아들 / 바리새인·헤롯당(13) / 사두개인(18) / 한 서기관(28) / 무리(37) / 과부(42).
- 상황 = 시험하러 오ム — "책잡으려 하여"(13절), "어찌하여 시험하느냐"(15절).
- 또렷한 답 = 가이사·하나님(17), 산 자의 하나님(27), 첫째·둘째 계명(29-31).
- 사상 = 사랑의 '다함'(30)과 과부의 '전부'(44)가 멀리서 닿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악한 농부·내던진 아들·"버린 돌이 머릿돌"·물러섬.
- 컷 2 (13-17): 세금·데나리온·"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컷 3 (18-27): 사두개인·일곱 형제·"산 자의 하나님"·떨기나무 인용.
- 컷 4 (28-34): 가장 큰 계명·하나님 사랑·이웃 사랑·"멀지 않다".

- 컷 5 (35-40): 다윗의 자손 물음(시 110)·서기관 경계.
- 컷 6 (41-44): 헌금함·부자들·과부의 두 렵돈·"전부를 넣었느니라".

6 – (1) 원어 카드

- ampelon(ἀμπελών) — 포도원. 1절.
- kephale gonias(κεφαλή γωνίας) — 모퉁이의 머릿돌. 10절.
- eikon(εἰκών) — 형상. 16절(데나리온).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 18·23절.
- agapao(ἀγαπάω) — 사랑하다. 30·31·33절.
- kardia(καρδία) — 마음. 30·33절.
- lepton(λεπτόν) — 렵돈(가장 작은 동전). 42절.
- chera(χήρα) — 과부. 40·42-43절.

6 – (2) 문학 구조

- 비유(1-12) → 세 번의 시험 문답(13-34) → 그분의 물음(35-37) → 경계(38-40) → 한 장면(41-44).
- 문힘에서 물음으로의 방향 전환(35절).
- 답이 거의 다 인용으로 짜임(시 118·출 3·신 6·시 110).
- "버린 돌이 머릿돌"(10)과 "전부를 넣음"(44) — 낮은 것의 들림이라는 멀리 놓인 짝.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형상과 글"은 가이사의 것 — 배경으로만.
-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42절)는 가장 작은 동전 단위 — 본문이 직접 환산.
-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18절)라는 것은 본문의 진술 — 정보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2:10-11 ↔ 시 118:22-23 (버린 돌·머릿돌)
- 막 12:26 ↔ 출 3:6 (떨기나무, 산 자의 하나님)
- 막 12:29-30 ↔ 신 6:4-5 (쉐마, 가장 큰 계명)
- 막 12:36 ↔ 시 110:1 (다윗의 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종들을 보내나 다 매 맞고 죽으며, 사랑하는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 내던져진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니 그들은 잡으려다 무리를 두려워해 물러선다. 바리새인·헤롯당이 세금을 묻자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신다. 사두개인이 일곱 형제로 부활을 묻자 "산 자의 하나님" 하시며 떨기나무를 인용하신다. 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을 묻자 쉘마를 들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대시고, 그에게 "멀지 않다" 하신다. 이번엔 그분이 시편 110편으로 "다윗의 자손" 물음을 던지시고, 긴 옷 입은 서기관을 경계하신다. 헌금함 앞에 앉아 보시니, 부자들은 많이 넣고 한 과부가 두 렵돈을 넣는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으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버린 돌과 두 렵돈 — 묻는 자들 곁에 놓인 전부"
- 초벌 부제: "버린 돌에서 잇따른 물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전부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악한 농부 비유(1-12)를 알레고리로 일대일 풀지 않고 포도원·종·아들·머릿돌의 위치만 기록.
- "가이사의 것"(17)을 정교 분리 담론으로 늘리지 않고 형상·글·답의 어휘만 보존.
- 과부의 두 렵돈(41-44)을 현금 교훈으로 미리 묶지 않고 '다함'(30)과 '전부'(44)의 멀리 놓인 짝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2장은 버린 돌과 머릿돌로 열린 잇따른 물음의 끝에 한 과부의 전부가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악한 농부 비유는 보내진 종들과 내던져진 아들로 흐르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로 닫힌다. 이어 세금·부활·계명의 물음이 줄을 서고, 그분은 거의 모든 답을 본문 인용으로 짜내신다. 문힘이 끝나자 이번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을 물으시고 서기관을 경계하신다. 그리고 현금함 앞에 앉아 부자들의 많은 돈 곁에 서 두 렵돈을 넣는 한 과부를 보시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전 뜰 가르침(35)·헌금함 앞(41). 소품 = 포도원·데나리온·두 렵돈. 네 인용 출처.
2 첫 느낌·분위기	잇따른 물음·답, 끝의 고요. 묻는 자가 줄을 섬. 큰 돈과 작은 돈의 공존.
3 시작과 끝	시작 — 비유(1절). 끝 — 한 과부의 전부(44절). 물음에서 바라봄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리새인·사두개인·서기관·무리·과부. 시험하려 옴(13·15). 사상 = 사랑의 다함(30)과 전부(44).
5 장면 컷	컷 1 악한 농부(1-12). 컷 2 세금(13-17). 컷 3 부활(18-27). 컷 4 계명(28-34). 컷 5 다윗의 자손(35-40). 컷 6 두 렵돈(41-44).
6 의문·발견·정보	물러섬(12). "멀지 않다"(34). 답이 인용으로 짜임. '보시는' 자세(41). 적게=많이(43).
7 동영상	버린 돌 → 세금 → 부활 → 계명 → 다윗의 자손 → 두 렵돈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버린 돌과 두 렵돈 — 묻는 자들 곁에 놓인 전부". 부제 — "버린 돌에서 잇따른 물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전부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성전 뜰과 헌금함 앞을 걸으며 두 렵돈 넣는 과부 뒤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낮은 것의 들림:**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10절)와 가장 적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43절)가 멀리서 짝을 이룬다.
2. **결 2 — 문힘에서 물음으로:** 세 번의 시험(13-34절) 뒤에 이번엔 그분이 물으신다(35절).
3. **결 3 — 다함과 전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30절)와 과부의 "생활비 전부"(44절)가 한 장에 놓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1:18** (잡으려다 무리 두려워 물러섬 결의 재등장), **막 13장** (성전·서기관 결의 이음).
- 다른 권 — **시 118:22-23·출 3:6·신 6:4-5·시 110:1** (네 인용).
- 정경 흐름 — 12장의 성전 논쟁은 13장 감람산 강화(성전 멸망 예고)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성전 뜰 비유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버린 돌이 머릿돌" 인용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계명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두 렵돈을 넣는 과부 곁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묻는 자들 곁에 한 사람의 전부가 놓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는 말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악한 농부 비유에서 아들이 내던져진다

- [x]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가 인용된다
- [x]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말해진다
- [x] "산 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을 답하신다
- [x]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잇대어진다
- [x] 한 과부가 두 렵돈을 넣는다
- [x]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 말해진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아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권능의 메시아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호(arc)다. 12장은 그 호의 성전 뜰 마지막 논쟁 국면이다. 악한 농부 비유(1-12절)는 보내진 종들과 내던져진 아들로 흘러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시 118:22-23 인용)로 닫히며, 메시아의 거절과 들림을 본문 인용으로 미리 둔다. 이어 세금·부활·계명의 시험이 줄을 서고, 그분은 답을 거의 모두 본문 인용(출 3:6·신 6:4-5·시 110:1)으로 짜내신다 — 율법과 선지서가 그분 안에서 한 줄로 꿰인다.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30절)는 성경 전체를 꿰는 사랑의 대명령에 닿는다. 잇따른 물음이 끝나자 한 과부의 두 렵돈(44절)이 놓이며, 12장은 13장 감람산 강화(성전 멸망 예고)로 넘어간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묻는 말들(시험하는 물음)→한 사람의 전부("생활비 전부", 44절) / 둘러선 물음→보시는 시선(헌금함 앞, 4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시끄러운 물음에서 조용한 전부로 미는 운동이다. 버린 돌·머릿돌(10절) → 세금(13-17절) → 부활(18-27절) → 가장 큰 계명(28-34절) → 다윗의 자손(35-40절) → 두 렵돈(41-44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둘러선 물음이 다 지나간 자리에 한 사람의 전부가 비추어지며 좁혀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논쟁과 헌금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낮은 것을 들어 올리고, 다함을 보시는 통치**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10절)와 가장 적게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43절)가 멀리서 짝을 이룬다 — 셈한 많음이 아니라 다 내어 준 적음이 들린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30절)는 다함과 과부의 "생활비 전부"(44절)는 같은 '전부'의 결로 겹친다. 묻는 입들은 많은 말로 그분을 잡으려 하지만, 본문이 마지막에 비추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전부를 내려놓는 손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논쟁의 승패지만, 아래는 낮은 것을 들고 전부를 보시는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남은 것 중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진 전부를 드리는 자리가 보여진다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는 말 앞에 멈춰 서는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묻는 자들 곁과 두 렵돈을 넣는 과부 뒤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전부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전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성전 뜰을 나서며 큰 돌들이 무너질 돌들로 — 두 렵돈을 받으신 그 성전을 두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며, 감람 산에서 환난과 오심을 지나 "깨어 있으라"는 강화가 열린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10절)는 비유 끝에 왜 인용되는가?

- 본문은 시 118편을 잇대어 둠.
- 비유와 인용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17절)의 경계는?

- 본문은 두 것의 나눔만 말함.
- 경계의 자리는 묵상으로 이월, 보류.

Q3. "산 자의 하나님"(27절)은 부활 물음에 어떻게 답인가?

- 떨기나무 인용을 들어 답하심.
- 답의 결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한 서기관에게만 "멀지 않다"(34절) 하심은?

- 그의 답을 들으시고 다른 결로 말씀.
- 다른 답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묻힘에서 물음으로 방향이 바뀐(35절)은 무엇을 남기는가?

- 이번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을 물으심.
- 방향 전환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가장 적게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43절)는?

- 본문은 "생활비 전부"라는 셈을 둠.
- 많고 적음의 셈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13장

MRK-013 · 복음서 · 헬라어

허물어질 돌들을 두고 시작된 강화가 환난과 오심을 지나 "깨어 있으라"로 닫힌다. 무너짐과 깨어 있음이 한 강화에 묶인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전을 나옴(1절) → 감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해 앉으심(3절). 거의 한 자리의 긴 강화.
- 소품·소재 = 돌들·건물(1-2절), 전쟁·지진·기근(7-8절), 공회·매질(9절), 해·달·별·구름(24-26절), 무화과 나무(28절), 문지기(34절).
- 물음 = 네 제자의 "언제·무슨 징조"(4절).
- "멸망의 가증한 것"(14절)은 다니엘 결의 표현 —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감탄으로 열려 무너짐으로 가라앉음.
- 전체가 긴장되나 "깨어 있으라"로 차분히 닫힘.
- 명령형 후렴 — "주의하라"·"두려워 말라"·"깨어 있으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 무너짐으로 열림.
- 37절: "깨어 있으라 하노라" — 깨어 있음으로 닫힘.
- 무너짐에서 깨어 있음으로. "아무도 모름"(32)과 깨어 있음(35)이 끝에서 만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한 제자(1) / 네 제자(3) / 강화 속 — 미혹자·거짓 그리스도·거짓 선지자·택하신 자들·문지기.
- 상황 = 징조 묻기(4절)와 깨어 있기(37절).
- 본문의 끼어들 —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14절), "성령이 말하신다"(11절).
- 사상 = 끝과 지켜짐의 함께 — 환난(19) 가운데 "택하신 자들 위하여 날들을 감하심"(20).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돌들의 감탄·"다 무너지리라"·네 제자 물음.
- 컷 2 (5-13): 미혹·전쟁·지진·기근·공회·"끝까지 견디는 자".
- 컷 3 (14-23): "가증한 것"·도망·큰 환난·거짓 그리스도·"미리 말하였노라".
- 컷 4 (24-27): 해·달·별·구름 타고 오는 인자·택하신 자들 모음.
- 컷 5 (28-31): 무화과나무 비유·"이 세대"·"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컷 6 (32-37): "아무도 모름"·문지기 비유·"깨어 있으라".

6 — (1) 원어 카드

- lithos(λίθος) — 돌. 1-2절.
- thlipsis(θλίψις) — 환난. 19·24절.
- bdelygma(βδέλυγμα) — 가증한 것·멸망의 가증한 것. 14절.
- eklektos(ἐκλεκτός) — 택하신 자. 20·22·27절.
- parabole(παραβολή) — 비유. 28절.
- syke(συκῆ) — 무화과나무. 28절(11장과 같은 단어).
- gregoreo(γρηγορέω) — 깨어 지키다. 34·35·37절.
- hora(ώρα) — 때·시각. 32절.

6 — (2) 문학 구조

- 물음(4) → 표징·환난·오심(5-27) → 비유·권면(28-37)의 큰 흐름.
- 명령형 후렴 — "주의하라"(5·9·23·33), "깨어 있으라"(33·35·37).
- 본문 끼어듦 —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14).
-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1)와 "아무도 모름"(32)의 짝.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멸망의 가증한 것"(14절)은 다니엘 결의 표현 — 배경으로만.
- "해가 어두워지며 별이 떨어지며"(24-25절)는 이사야·요엘 결의 묵시 표현 — 어휘 결만 기록.
-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10절)는 본문 자체의 진술 — 정보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3:14 ↔ 단 9:27 / 11:31 (멸망의 가증한 것, 배경)
- 막 13:24-25 ↔ 사 13:10 / 율 2:10 (해·달·별의 어두워짐)
- 막 13:26 ↔ 단 7:13 (구름 타고 오는 인자)
- 막 13:28-29 ↔ 막 11:12-21 (무화과나무 결의 재등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전을 나오실 때 한 제자가 큰 돌들에 감탄하자 "다 무너지리라" 하신다. 감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해 앉으시니 네 제자가 "언제·무슨 징조"를 묻는다. 미혹·전쟁·지진·기근을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고, 공회에 넘겨질 것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를 말씀하신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설 때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고, 큰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시며 "미리 말하였노라" 하신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 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하신다. 무화과나무 비유로 가까움을 말씀하시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신다. 문지기처럼 "깨어 있으라"를 거듭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노라"로 닫으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무너지질 돌들과 깨어 있으라 — 구름 타고 오는 인자"

- 초벌 부제: "무너질 돌들에서 오는 인자로, 그리고 깨어 있으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표징·환난(5-23)을 시한표로 짜지 않고 명령형 후렴과 소재 나열의 위치만 기록.
- "구름 타고 오는 인자"(26)를 종말론 도식으로 굳히지 않고 단 7:13 결의 어휘만 보존.
-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름"(32)과 "깨어 있으라"(35)의 이음은 어휘 짝으로만 기록,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3장은 허물어질 돌들로 열린 강화가 환난과 오심을 지나 "깨어 있으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성전의 큰 돌들에 감탄하는 제자에게 "다 무너지리라" 하시며, 감람 산에서 마주 앉아 긴 강화를 여신다. 미혹·전쟁·지진·기근의 표징과 큰 환난, 거짓 그리스도를 지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하신다. 무화과나무 비유로 가까움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로 확실함을 말씀하시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름" 하시며 문지기의 "깨어 있으라"로 강화를 닫으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전 나옴(1) → 감람 산에 앉으심(3). 소품 = 돌들·전쟁·해·달·별·구름·무화과나무·문지기. "가증한 것"(14).
2 첫 느낌·분위기	감람에서 무너짐으로, 끝은 "깨어 있으라"로 차분. 명령형 후렴.
3 시작과 끝	시작 — 무너짐(1-2절). 끝 — 깨어 있으라(37절). 무너짐에서 깨어 있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네 제자·미혹자·거짓 그리스도·택하신 자들·문지기. 징조 묻기와 깨어 있기. 사상 = 끝과 지켜짐(20).
5 장면 컷	컷 1 돌들(1-4). 컷 2 재난의 시작(5-13). 컷 3 큰 환난(14-23). 컷 4 인자의 오심(24-27). 컷 5 무화과나무(28-31). 컷 6 깨어 있으라(32-37).
6 의문·발견·정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14). "복음이 먼저 전파"(10). 묵시 표현 모임(24-25). 성령의 끼어들(11). 모름과 깨어 있음(32-35).
7 동영상	무너질 돌들 → 재난의 시작 → 큰 환난 → 오는 인자 → 무화과나무 → 깨어 있으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무너질 돌들과 깨어 있으라 — 구름 타고 오는 인자". 부제 — "무너질 돌들에서 오는 인자로, 그리고 깨어 있으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감람 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무너짐과 "깨어 있으라" 사이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무너짐과 깨어 있음:** 돌들의 무너짐(2절)으로 열린 강화가 "깨어 있으라"(37절)로 닫힌다.
2. **결 2 — 끝과 지켜짐의 함께:** 큰 환난(19절)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셨다"(20절)가 놓인다.
3. **결 3 — 모름이 깨어 있음의 까닭:**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32절)가 "깨어 있으라"(35절)로 이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1:12-21** (무화과나무 결의 재등장), **막 14:34·37-38** (겻세마네 "깨어 있으라"의 이음).
- 다른 권 — **단 7:13** (구름 타고 오는 인자), **사 13:10 / 율 2:10** (해·달·별의 어두워짐).
- 정경 흐름 — 13장의 "깨어 있으라"는 곧 14장 겻세마네에서 잠든 제자들과 맞붙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큰 돌들을 올려다보는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다 무너지리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구름 타고 오는 인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아무도 모른다"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무너짐과 깨어 있음은 한 강화에 묶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깨어 있으라"는 말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큰 돌들이 다 무너지리라 하신다
- [x] 네 제자가 "언제·무슨 징조"를 묻는다
- [x] 미혹·전쟁·환난의 표징이 나열된다
- [x]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 [x] 무화과나무 비유로 가까움을 말씀하신다
- [x]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가 말해진다
- [x] "깨어 있으라"가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아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권능의 메시야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호(arc)다. 13장은 그 호의 **마지막 강화 국면**으로, 십자가 바로 앞에서 시선을 끝(종말)까지 멀리 연다. 성전의 큰 돌들이 "다 무너지리라"(2절)는 말로 열리고, 감람 산에서 미혹·전쟁·환난의 표징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심(24-27절, 단 7:13의 결)이 펼쳐진다. 권능의 메시야가 끝내 영광 중에 오실 것이 —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그분이 — 한 강화에 접친다(이미/아직).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32절)는 모름 위에 "깨어 있으라"(37절)가 세워진다. 이 강화의 "깨어 있으라"는 곧 14장 겐세마네에서 잠든 제자들과 맞붙으며, 13장은 수난 내러티브로 넘어간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너질 돌들(감탄받던 성전)→깨어 있으라(문지기의 지킴) / 올려다보던 감탄→지키며 깨어 있는 자세(3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무너짐의 두려움에서 깨어 있음의 자세로 미는 운동이다. "다 무너지리라"(2절) → 재난의 시작(5-13절) → 큰 환난(14-23절) → 구름 타고 오는 인자(24-27절) → 무화과나무의 가까움(28-31절) → "아무도 모른다"·"깨어 있으라"(32-37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무너짐의 표징이 깨어 있음의 명령으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무너짐과 환난의 표징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끝 가운데 지켜지고, 없어지지 않는 말에 붙어 깨어 있는 통치**다. 큰 환난(19절) 한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20절)가 놓여 — 두려움의 표징 가운데 지켜짐이 깔린다. 회복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1절)에 붙어 깨어 있는 자리다. "깨어 있으라"는 아는 것 위가 아니라 모름(32절) 위에 세워진다 — 통치의 때를 셈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르기에 더 문을 지키는 자리다. 빙산의 수면 위는 종말의 표징이지만, 아래는 끝 가운데 지켜지는 깨어 있음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모름을 핑계 삼지 않고 모르기에 더 깨어 문을 지키는 자리로 부르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 앞에 멈춰 서는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무너질 돌들과 "깨어 있으라"는 말 사이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깨어 있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깨어 있으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강화 속 "깨어 있으라"가 곧 겿세마네의 잠듦과 맞붙으러 — 깨어 있으라 하신 그 말이 동산에서 세 번 잠든 제자들과 엇갈리고, 부어 드림과 부인이 한 밤에 교차한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감탄(1절) 뒤에 곧 "다 무너지리라"(2절)가 오는 까닭은?

- 본문은 감탄과 무너짐을 바로 잇뎀.
- 둘의 이음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환난 나열 가운데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10절)가 끼어든 까닭은?

- 본문이 표징 사이에 뒹.
- 끼어듦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보류.

Q3.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14절)는 누구를 향한 끼어듦인가?

- 강화 중간의 한 마디로 들어옴.
- 향한 대상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셨다"(20절)는 어둠과 어떻게 함께인가?

- 큰 환난 가운데 지켜짐이 놓임.
- 어둠과 지켜짐의 함깨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5.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32절)는 무엇을 남기는가?

- 모름이 본문에 직접 놓임.
- 모름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6. "깨어 있으라"(37절)가 "모든 사람에게" 함함은?

- 네 제자에게 시작된 말이 모두에게로 넓혀짐.
- 넓힘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14장

MRK-014 · 복음서 · 헬라어

옥합이 깨어지고 잔이 돌려지고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 부르짖음이 들린다. 부어 드림과 잠
들, 고백과 부인이 한 밤에 엇갈린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베다니 시몬의 집(3절) → 다락방(15절) → 겐세마네(32절) → 대제사장의 집(53절) → 뜰(54·66절).
- 소품 = 향유 옥합(3절), 떡과 잔(22-23절), 검과 몽치(43절), 베 흠이불(51절), 닭 울음(72절).
- 유월절(12-16절)이 시간 배경 — pascha.
- 인용 = 속 13:7(목자를 침, 27절), 단 7:시 110 절(62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함께에서 홀로로 줄어들 — 끝엔 베드로 혼자 불 결.
- 온기(향유)와 한기(배반·부인)의 공존.
- 셋의 반복 — 세 번 기도·세 번 잠·세 번 부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어떻게 흥계로 잡아 죽일까" — 죽일 모의로 열림.
- 72절: "베드로가... 통곡하였더라" — 한 사람의 통곡으로 닫힘.
- 바깥의 음모에서 안의 무너짐으로. "온 천하에 기억"(9)과 부인이 끝에서 갈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대제사장·서기관 / 향유 부은 여인 / 유다 / 열두 제자 / 베드로·야고보·요한 / 잡으러 온 무리 / 베 흠이불 청년 / 공회 / 여종.
- 상황 = 부어 드림(3절)과 내어 줌(10-11절)의 대비.
- 본문의 평가 직접 됨 —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6절), "장례를 미리 준비"(8절).
- 사상 = "깨어 있으라"(34)가 잠든 제자(37-41)와 맞붙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죽일 모의·향유 부음·깨뜨린 옥합·유다의 넘김.
- 컷 2 (12-21): 유월절 준비·"하나가 나를 팔리라"·근심.
- 컷 3 (22-31): 떡과 잔·"언약의 피"·"다 버리리라"·베드로 장담.
- 컷 4 (32-42): 겐세마네·"아바 아버지"·세 번 기도·세 번 잠.

- 컷 5 (43-52): 입맞춤·검과 몽치·도망·베 흠이불 청년.
- 컷 6 (53-72): 공회·"내가 그니라"·세 번 부인·닭 울음·통곡.

6 – (1) 원어 카드

- nardos(νάρδος) — 나드(향유). 3절.
- pascha(πάσχα) — 유월절. 12·14·16절.
- diatheke(διαθήκη) — 언약. 24절 "언약의 피".
- Abba(ἄββᾶ) — 아바·아버지(아람어). 36절.
- gregoreo(γρηγορέω) — 깨어 있으라. 34·37·38절(13장과 같은 단어).
- proseuchomai(προσεύχομαι) — 기도하다. 35·39절.
- Christos(Χριστός) — 그리스도. 61절.
- arneomai(ἄρνέομαι) — 부인하다. 68·70·71절.

6 – (2) 문학 구조

- 다섯 무대의 이동 — 집 → 다락방 → 동산 → 대제사장 집 → 뜰.
- 셋의 반복 — 세 번 기도(35·39·41)·세 번 잠(37·40·41)·세 번 부인(68·70·71).
- 부어 드림(3-9)과 내어 줌(10-11)의 인접 배치.
- 13장 "깨어 있으라"(gregoreo)의 이어짐(34·37·38).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순전한 나드"(3절)는 값비싼 향유 — "삼백 데나리온"(5절)으로 본문이 값을 듬.
- 유월절 준비·"큰 다락방"(15절)은 절기 관행 — 배경으로만.
- "베 흠이불 청년"(51-52절)은 본문이 정체를 밝히지 않음 — 정보로만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4:27 ↔ 속 13:7 (목자를 침, 양들이 흠이짐)
- 막 14:24 ↔ 출 24:8 (언약의 피, 배경)
- 막 14:62 ↔ 단 7:13 / 시 110:1 (인자·권능자의 우편)
- 막 14:34·37-38 ↔ 막 13:34-37 ("깨어 있으라"의 이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죽일 모의가 무르익는 중에, 베다니의 한 집에서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다. "좋은 일을 하였다, 온 천하에 기억되리라" 하시고, 유다는 넘길 길을 찾는다. 유월절을 다락방에 준비하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근심한다. 떡을 떼어 "내 몸", 잔을 돌려 "언약의 피"라 하시고,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나 베드로는 장담한다. 겿세마네에서 심히 슬퍼하사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세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세 번 잠든다. 유다의 입맞춤과 검·몽치로 잡히고 다 도망한다. 공회 앞 "내가 그리스도냐"에 "내가 그니라" 하시고, 멀찍이 따른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한다. 닭이 두 번째 울자 그 말을 생각하며 통곡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깨뜨린 옥합과 잠든 제자들 —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원대로"
- 초벌 부제: "부어 드림과 내어 줌 사이에서, 깨어 있음과 잠들 사이에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떡과 잔(22-25)을 성례 신학으로 굳히지 않고 "내 몸"·"언약의 피"(diatheke)의 위치만 기록.
- 갯세마네 기도(32-42)를 신학 도식으로 풀지 않고 Abba·세 번 기도·세 번 잠의 어휘 짝만 보존.
- 베드로의 부인(66-72)을 인물 평가로 늘리지 않고 arneomai 세 번과 닭 울음의 위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4장은 깨뜨린 옥합과 잠든 제자들, 고백과 부인이 한 밤에 엇갈리는 장이다.

한 문단: 죽일 모의 가운데 한 여인이 값진 옥합을 깨뜨려 부어 드리고, 한 제자는 은을 받고 넘길 길을 찾는다. 다락방에서 떡과 잔이 "내 몸"과 "언약의 피"로 돌려지고, 갯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 부르짖음이 세 번 오르나 제자들은 세 번 잠든다. 잡히심에 다 도망하고, 공회 앞에서 "내가 그니라" 하시는 동안 멀찍이 따른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다 닭 울음에 통곡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시몬의 집(3) → 다락방(15) → 겿세마네(32) → 대제사장 집(53) → 뜰(66). 소품 = 옥합·떡·잔·검·닭 울음.
2 첫 느낌·분위기	함께에서 홀로로. 온기와 한기의 공존. 셋의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 죽일 모의(1-2절). 끝 — 통곡(72절). 바깥의 음모에서 안의 무너짐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여인·유다·세 제자·공회·여종. 부어 드림과 내어 줌의 대비. 사상 = "깨어 있으라"와 잠들의 맞붙음.
5 장면 컷	컷 1 향유(1-11). 컷 2 유월절 준비(12-21). 컷 3 떡과 잔(22-31). 컷 4 겿세마네(32-42). 컷 5 체포(43-52). 컷 6 공회·부인(53-72).
6 의문·발견·정보	장례 준비와 잇뎀(8). 베 흠이불 청년(51-52). 목자를 침 인용(27). "구름 타고 오는 인자"(62). 닭 울음(72).
7 동영상	깨뜨린 옥합 → 떡과 잔 → "아바 아버지"와 잠 → 잡힘 → 부인 → 통곡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깨뜨린 옥합과 잠든 제자들 —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원대로". 부제 — "부어 드림과 내어 줌 사이에서, 깨어 있음과 잠들 사이에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다락방과 동산과 뜰을 걸으며 "아바 아버지" 부르짖음 가까이 선다. 닭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부어 드림과 내어 줌:** 한 여인의 깨뜨린 옥합(3절)과 유다의 넘김(10-11절)이 같은 컷에 인접한다.
2. **결 2 — 깨어 있으라와 잠들:** "깨어 있으라"(34절)는 권면이 세 번 잠든 제자들(37-41절)과 맞붙는다.
3. **결 3 — "내가 그니라"와 세 번 부인:** 안에서 "내가 그니라"(62절) 하실 때 밖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72절).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3:34-37** ("깨어 있으라"의 이름), **막 8:31-9:31-10:33-34** (수난 예고의 성취 진입).
- 다른 권 — **속 13:7** (목자를 침), **단 7:13 / 시 110:1** (62절), **출 24:8** (언약의 피).
- 정경 흐름 — 14장의 잡히심과 심문은 곧 15장 빌라도 재판과 십자가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향유 냄새가 도는 집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깨뜨려지는 옥합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아바 아버지" 부르짖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한 밤에 부어 드림과 부인이 엇갈린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다
- [x] 떡과 잔이 "내 몸"."언약의 피"로 돌려진다
- [x] 겿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신다
- [x] 제자들이 세 번 잠든다
- [x] 잡히심에 다 도망한다
- [x]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
- [x] 닭이 두 번째 울자 통곡한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아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권능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호(arc)다. 14장은 그 호가 수난으로 진입하는 밤이다. 8·9·10장에 거듭된 수난 예고가 이제 성취로 들어선다. 다락방의 떡과 잔이 "내 몸"."언약의 피"(출 24:8의 결)로 돌려지며 십자가의 의미가 식탁에 놓이고, 겿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그 길을 받아 맡긴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슥 13:7 인용)와 공회 앞 "내가 그니라"."구름 타고 오는 인자"(단 7:13·시 110:1, 62절)가 함구되던 메시아 비밀을 처음 또렷이 드러낸다 — 그러나 그 드러남이 곧 잡힘과 버림받음이다. 14장의 잡히심과 심문은 곧 15장 빌라도 재판과 십자가로 이어진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함께(만찬·부어 드림)→홀로(잠들·도망·부인) / 부어 드림의 온기→"아버지의 원대로"의 내어 맡김(36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함께함에서 홀로 됨으로, 갈망에서 내어 맡김으로 미는 운동이다. 깨뜨린 옥합(3절) → 떡과 잔(22-25절) → "아바 아버지"와 세 번 잠들(36-41절) → 잡히심에 다 도망함(50절) → 안의 "내가 그니라"(62절) → 밖의 세 번 부인과 통곡(72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함께가 홀로로 좁혀지며 잔을 받아 맡기는 자리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만찬·기도·체포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갈라지는 본질은 깨뜨려 부어 드림과 그 잔을 받아 맡기는 통치다. 한 여인은 값진 옥합을 깨뜨려 부어 드리고(3절), 한 제자는 은을 받고 넘길 길을 찾는다(10-11절) — 같은 컷에 인접한 두 '드림'이 정반대로 갈라진다. "깨어 있으라"(34절)는 권면이 세 번 잠든 제자들과 맞붙고, 안에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밖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 그 모든 무너짐의 한가운데,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36절)가 정직한 갈망과 내어 맡김을 한 호흡에 담는다. 빙산의 수면 위는 잡히고 버림받는 밤이지만, 아래는 잔을 받아 맡기는 내어 드림의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잔을 옮겨 달라는 정직한 갈망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받는 자리가 한 호흡에 있다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 앞에 멈춰 서는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깨뜨린 옥합 결과 "아바 아버지" 부르짖음 가까이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내어 맡김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아버지의 원대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동산에서 받아 맡긴 잔이 곧 골고다의 십자가로 — 잡혀 넘겨진 분이 빌라도 앞에 잠잠히 서고, 어둠과 큰 부르짖음 뒤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괘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온 천하에 기억되리라"(9절)는 한 여인의 행동에 왜 붙는가?

- 본문은 그 행동을 장례 준비와 잇뎌(8절).
- 기억됨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부어 드림(3절)과 내어 줌(10절)이 왜 인접하는가?

- 한 여인의 부음과 한 제자의 넘김이 나란히.
- 인접의 까닭은 목상으로 이월, 보류.

Q3.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36절)는?

- 옮김의 구함과 맡김이 한 기도에 놓임.
- 둘의 함께는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깨어 있으라"(34절)와 세 번 잠들(37-41절)은 어떻게 맞붙는가?

- 같은 동산에서 권면과 잠이 부딪침.
- 맞붙음의 결은 목상에서 다시.

Q5. 베 훌이불 청년(51-52절)은 누구이며 왜 끼어드는가?

- 본문은 정체를 밝히지 않음.
- 끼어듦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세 번 기도(컷 4)와 세 번 부인(컷 6)은 왜 같은 수인가?

- 한 밤에 같은 수로 놓임.
- 같은 수의 결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15장

MRK-015 · 복음서 · 헬라어

묻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고, 어둠과 큰 부르짖음 뒤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 침묵과 외침 사이에 한 죽음이 놓인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빌라도 앞(1절) → 브라이도리온(16절) → 골고다(22절) → 무덤(46절).
- 소품 = 자색 옷·가시관·갈대(17·19절), 몰약 포도주(23절), 죄패(26절), 신 포도주(36절), 찢어진 휘장(38절), 세마포·굴린 돌(46절).
- 시간 = 제삼시(25), 제육시~제구시 어둠(33), 제구시(34).
- 어휘 결 = 시편 22편(옷 나눔 24·버리심 34·신 포도주 36) —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체가 무겁고, 한가운데는 침묵.
- 침묵 끝의 한 번의 큰 외침(34·37절)이 더 크게 들림.
- 본문이 사실만 짧게 둠 — 군더더기 없는 진술.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 넘겨짐으로 열림.
- 47절: "그가 어디 두신 것을 보더라" — 무덤을 바라봄으로 닫힘.
- 넘겨짐에서 바라봄으로, 외침에서 고요로. 큰 부르짖음(37)과 찢어진 휘장(38) 뒤 잠긴 무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빌라도 / 대제사장 / 무리 / 바라바 / 군병 / 구레네 시몬 / 두 강도 / 지나가는 자들 / 백부장 / 여인들 / 아리마대 요셉.
- 상황의 한가운데 = 침묵 —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5절).
- 침묵과 외침의 공존 — 5절의 잠잠하심 / 34·37절의 큰 부르짖음.
- 본문의 진술 = 백부장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3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빌라도 앞·"네 말이 옳도다"·침묵·놀람.
- 컷 2 (6-15): 사면 관례·바라바·외침·넘겨줌.
- 컷 3 (16-20): 브라이도리온·자색 옷·가시관·갈대·조롱.
- 컷 4 (21-32): 구레네 시몬·골고다·제비뽑기·죄패·두 강도.

- 컷 5 (33-41): 어둠·"엘로이... 사박다니"·큰 부르짖음·찢어진 휘장·백부장·여인들.
- 컷 6 (42-47): 아리마대 요셉·세마포·바위 무덤·굴린 돌·두 여인이 봄.

6 – (1) 원어 카드

- stauroo(σταυρόω) — 십자가에 못 박다. 13·24·25절.
- Barabbas(Βαραββᾶς) — 바라바(아람어 '아버지의 아들' 결). 7·11·15절.
- praitorion(πραϊτώριον) — 브라이도리온(라틴 차용). 16절.
- Golgotha(Γολγοθᾶ) — 골고다(아람어 '해골의 곳'). 22절.
- Eloi... sabachthani(Ελωι... σαβαχθανι) —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아람어). 34절.
- katapetasma(καταπέτασμα) — 성소 휘장. 38절.
- kentyrion(κεντυρίων) — 백부장(라틴 차용). 39·44-45절.

6 – (2) 문학 구조

- 재판(1-15) → 조롱·못 박힘(16-32) → 어둠·운명(33-41) → 장사(42-47)의 큰 흐름.
- 시간 표지의 못 박힘 — 제삼시·제육시·제구시.
- 어둠(33)으로 열려 찢어진 휘장(38)으로 닫히는 컷 5.
- 침묵(5)과 큰 외침(34·37)의 대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명절의 사면 관례(6절)는 본문이 둔 배경 — 정보로만.
-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21절)는 본문의 부기 — 인물 정보로 기록.
- 옷 나눔·버리심·신 포도주(24·34·36)는 시편 22편 어휘 결 — 배경으로만, 인용 명시는 본문에 없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5:34 ↔ 시 22:1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 막 15:24 ↔ 시 22:18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음)
- 막 15:36 ↔ 시 69:21 (신 포도주, 배경)
- 막 15:38 ↔ 막 1:10 ("찢어지다" 결의 호응 — 하늘 찢어짐 ↔ 휘장 찢어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새벽에 공회가 빌라도에게 넘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에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는 더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놀란다. 우리가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는 못 박으라 외치니, 빌라도가 만족을 주고자 넘겨준다. 군병들이 자색 옷·가시관으로 조롱하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른다. 몰약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죄패엔 "유대인의 왕"이라 쓴다. 제육시부터 어둠이 제구시까지 임하고, 제구시에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크게 부르짖으신다. 다시 크게 부르짖고 숨지시니, 성소 휘장이 위로 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마주 섰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다. 저물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구해 세마포로 싸서 바위 무덤에 두고 돌을 굴린다. 두 여인이 그 두신 곳을 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잠잠하심과 큰 부르짖음 — 찢어진 휘장 앞의 한 죽음"
- 초벌 부제: "잠잠하심과 큰 부르짖음 사이에서, 어둠과 찢어진 휘장 사이에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수난 장면(16-41)을 감정 묘사나 신학 해설로 늘리지 않고 본문이 둔 사실·소품·시각만 절제하여 기록.
- 34절 "엘로이... 사박다니"를 속죄 교리로 미리 풀지 않고 본문이 직접 옮긴 번역과 시 22편 어휘 결만 보존.
- 38절 찢어진 휘장(katapetasma)을 상징 해석으로 굳히지 않고 1:10 "찢어지다"와의 어휘 호응만 기록,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5장은 묻는 자 앞의 잠잠하심과 어둠 속 큰 부르짖음 사이에 한 죽음과 찢어진 휘장이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빌라도 앞에서 한 마디 뒤 잠잠하시고, 무리는 바라바를 구한다. 조롱과 못 박힘을 지나 제육시부터 어둠이 임하고, 제구시에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큰 부르짖음이 오른다. 다시 크게 부르짖고 숨지시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마주 섰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다. 저 물어 한 무덤에 두시고 돌을 굴리니, 두 여인이 그 두신 곳을 바라본다. 본문은 사실만 절제하여 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빌라도 앞(1) → 브라이도리온(16) → 골고다(22) → 무덤(46). 소품 = 자색 옷·가시관·죄패·찢어진 휘장·굴린 돌.
2 첫 느낌·분위기	전체가 무겁고 한가운데는 침묵. 한 번의 큰 외침. 사실만 짧게 둬.
3 시작과 끝	시작 — 넘겨짐(1절). 끝 — 무덤을 바라봄(47절). 외침에서 고요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빌라도·바라바·시몬·백부장·여인들·요셉. 한가운데의 침묵(5). 백부장의 한 마디(39).
5 장면 컷	컷 1 빌라도 앞(1-5). 컷 2 바라바(6-15). 컷 3 조롱(16-20). 컷 4 골고다(21-32). 컷 5 어둠·운명(33-41). 컷 6 장사(42-47).
6 의문·발견·정보	빌라도의 동기(10·15). 몰약 포도주 거절(23). 어둠과 휘장의 짝(33·38). 시 22편 어휘 결.
7 동영상	넘겨짐 → 조롱 → 어둠 → 큰 부르짖음 → 찢어진 휘장 → 잠긴 무덤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잠잠하심과 큰 부르짖음 — 찢어진 휘장 앞의 한 죽음". 부제 — "잠잠하심과 큰 부르짖음 사이에서, 어둠과 찢어진 휘장 사이에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뜰과 골고다와 무덤 곁을 잠잠히 걸으며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곁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침묵과 큰 외침:** 묻는 자 앞의 잠잠하심(5절)과 어둠 속 큰 부르짖음(34·37절)이 한 인물 안에 함께 있다.
- 결 2 — 어둠과 찢어진 휘장:** 어둠으로 열린 컷(33절)이 찢어진 휘장(38절)으로 닫힌다.
- 결 3 — 마주 본 자리의 한 마디:** 십자가를 마주 섰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39절)을 말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10-11** ("찢어지다"와 "하나님의 아들"의 처음 호응), **막 14:62** (심문의 "내가 그니라"의 이음).
- 다른 권 — **시 22:1-18** (버리심·옷 나눔), **시 69:21** (신 포도주).
- 정경 흐름 — 15장의 잠긴 무덤은 곧 16장 빈 무덤으로 열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빌라도 뜰 가장자리에 한 사람이 말없이 선다.
- **멈춤 1:** 묻는 자 앞의 침묵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어둠 속 큰 부르짖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휘장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침묵과 외침 사이에 한 죽음이 놓인다*는 곁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빌라도 앞에서 한 마디 뒤 잠잠하시다
- [x] 무리가 바라바를 구한다
- [x]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다
- [x] 제육시부터 어둠이 임한다
- [x]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신다
- [x]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 [x] 두 여인이 무덤 두신 곳을 바라본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야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권능의 메시야가 끝내 십자가에서 누 구인지를 드러내는 호(arc)다. 15장은 그 호의 절정(드러남)이다. 마가복음 내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덮여 있던 메시야 비밀이, 십자가 앞에서 처음 사람의 입을 통해 풀린다. 십자가를 마주 섰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39절)라 하고, 같은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38절). 본문 안에서 이 "찢어짐"(38절)과 "하나님의 아들"(39절)은 1장 세례 때 하늘이 "갈라지고"(1:10)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1:11)이라 한 처음과 멀리서 호응한다 — 책의 처음과 끝을 묶는 한 호다. 시 22편의 어휘(버리심·옷 나눔)가 결로 깔린다.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가 곧 가장 높은 드러남의 자리인 — 그 절정에 15장이 서며, 곧 16장 빈 무덤으로 열린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잠잠하심(묻는 자 앞의 침묵, 5절) → 큰 부르짖음(34·37절) → 찢어진 휘장·마주 본 고백("하나님의 아들", 38·39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가려짐에서 드러남으로 미는 운동이다. 빌라도 앞 침묵(5절) → 바라바·조롱(6-20절) → 골고다(21-32절) → 어둠과 큰 부르짖음(33-37절) →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휘장(38절) → 마주 본 백부장의 고백(39절) →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40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오래 잠잠하고 가려졌던 것이 한 외침과 찢어짐으로 드러나는 한 운동이다. 본문은 이를 사실만 절제하여 둔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재판·조롱·죽음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열리는 본질은 가려졌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통치다. 책 내내 함구되던 메시야 비밀이, 십자가 앞 백부장의 고백(39절)에서 처음 사람의 입으로 풀린다 — 권능의 표적을 본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마주 본 자리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휘장(38절)은 가려져 있던 자리가 위로부터 열림을 가리키되, 본문은 그 뜻을 단정하지 않고 둔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죽음이지만, 아래는 숨김이 드러남으로 풀리는 통치다 — 다만 여기서 관찰은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잠잠히 머문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권능을 본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마주 본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가 나온다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멀리서 잠잠히 바라보는 한 자리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십자가를 마주 본 백부장 곁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곁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마주 봄의 자리에 잠잠히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찢어진 휘장.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잠긴 무덤의 굴린 돌이 곧 이미 굴러간 돌로 — 잠잠히 두신 죽음 뒤로 향품을 든 새벽 걸음이 와, 빈자리 앞에서 "그가 살아나셨다"가 들린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네 말이 옳도다"(2절) 뒤의 침묵(5절)은 무엇을 남기는가?

- 본문은 한 마디 뒤 대답하지 않으심만 둬.
- 침묵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몰약 포도주를 받지 않으심(23절)은?

- 본문은 받지 않으심만 기록.
- 받지 않으신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보류.

Q3. 어둠(33절)과 찢어진 휘장(38절)은 어떻게 짝인가?

- 어둠으로 열린 컷이 찢어진 휘장으로 닫힘.
- 둘의 짝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34절)는 본문이 왜 아람어 그대로 두는가?

- 본문은 음역과 번역을 함께 둬.
- 아람어를 남긴 곁은 묵상에서 다시.

Q5. 백부장의 "하나님의 아들"(39절)이 십자가 곁에서 나옴은?

- 마주 섰던 자리에서 한 마디가 나옴.
- 그 자리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40·47절)이 끝에 놓임은?

- 십자가와 무덤을 바라봄이 두 번 기록됨.
- 바라봄의 반복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가복음 16장

MRK-016 · 복음서 · 헬라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이들이 굴러간 돌과 빈자리를 본다. 슬픔으로 간 걸음 끝에 "그가 살아나셨다"가 놓인다.

관찰된 사실

마가복음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 앞(1-2절). 무덤 안과 밖이 거의 한 자리.
- 소품 = 향품(1절), 굴러간 큰 돌(4절), 흰 옷 입은 청년(5절), "두었던 곳"(6절).
- 시간 = "안식일이 지나매... 해 돋을 때"(1-2절).
- 이어지는 단락(9-20절)의 소재 = 두 제자·열한 제자·보내심·승천 진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어두운 새벽의 무거운 걸음이 "살아나셨다"에서 환해짐.
- 8절은 기쁨이 아니라 떨림·무서움으로 한 걸이 닫힘.
- 걱정(3절)과 곧 풀림(4절)이 바로 붙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향품을 사다가... 무덤으로 가며" — 무덤으로 향함으로 열림.
- 8절: "무서워하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 떨림으로 한 걸이 닫힘.
- 9-20절(이어지는 단락):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20절)로 보내심·함께하심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막달라 마리아·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살로메(1) / 흰 옷 청년(5) / (9절 이하) 막달라 마리아·두 제자·열한 제자.
- 상황 = 찾음과 비어 있음 —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6절).
- 베드로의 호명(7절) — 부인한 이름이 다시 불림.
- 떨림(8절)과 보냄(15절)이 한 장에 함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새벽·향품·무덤으로 가는 세 여인.
- 컷 2 (3-4): "누가 돌을 굴러 주리요"·이미 굴러 있는 큰 돌.
- 컷 3 (5-7): 흰 옷 청년·"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베드로 전갈·"먼저 갈릴리로".
- 컷 4 (8): 떨며 놀라 나옴·"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 컷 5 (9-14): (이어지는 단락) 막달라 마리아·두 제자·열한 제자·"믿지 아니하더라" 반복.

- 컷 6 (15-20): 보내심·승천 진술·"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6 — (1) 원어 카드

- aroma(ἄρωμα) — 향품. 1절.
- lithos(λίθος) — 돌. 3-4절.
- neaniskos(νεανίσκος) — 청년. 5절.
- egerthe(ἠγέρθη) — 살아나셨다·일으켜지셨다. 6절.
- proago(προάγω) — 먼저 가다. 7절.
- ekthambeo(ἐκθαμβέω) — 심히 놀라다. 5·8절.
- tromos(τρόμος) — 떨림. 8절.
- ekstasis(ἔκστασις) — 놀람·황홀(여기선 두려움 결). 8절.

6 — (2) 문학 구조

- 새벽 걸음(1-2) → 돌의 물음과 풀림(3-4) → 청년의 전갈(5-7) → 떨림(8)의 또렷한 한 결.
- 걱정(3)과 곧 풀림(4)의 인접.
- "믿지 아니하더라"의 반복(11·13·14절, 이어지는 단락).
- 8절에서 한 결이 매듭짓고, 9-20절이 이어지는 결.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향품을 무덤에 가져감(1절)은 장례 관행 — 배경으로만.
- 9-20절은 사본에 따라 전승이 갈리는 단락으로 알려져 있음 — 관찰 단계에서는 본문 그대로 따라가되 사정만 적고 판단은 보류.
-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7절)는 막 14:28의 말씀과 호응 — 본문 안의 호응으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막 16:7 ↔ 막 14:28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의 성취 결)
- 막 16:6 ↔ 막 8:31·9:31·10:34 (수난 예고의 "사흘 후 살아남"의 닿음)
- 막 16:7 ↔ 막 14:66-72 (부인한 베드로의 호명)
- 막 16:5 ↔ 막 14:51-52 ("청년"이라는 단어의 멀리 놓인 호응, 어휘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식일이 지나고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간다. "누가 돌을 굴러 주지요" 걱정하나, 가서 보니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하라 하니, 여인들은 떨며 놀라 나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나 거듭 믿지 않으며, 끝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보내시고 승천하셨다는 진술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굴러간 돌과 빈자리 —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 초벌 부제: "향품을 든 슬픔의 걸음에서 굴러간 돌과 빈자리로, 그리고 보내심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살아나셨다"(egerthe, 6절)를 부활 교리로 미리 풀지 않고 청년의 전갈과 빈자리의 손짓만 기록.
- 8절의 떨림(tromos)을 부정적 평가로 굳히지 않고 기쁨·두려움의 어휘 공존만 보존.
- 9-20절 사본 사정은 본문 그대로 따라가되 판단을 보류 — "믿지 아니하더라"의 반복과 보내심의 위치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가복음 16장은 향품을 든 슬픔의 걸음 끝에 굴러간 돌과 빈자리, 그리고 "살아나셨다"가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안식 후 첫날 새벽,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며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 걱정하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있다. 흰 옷 입은 청년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하라 한다. 여인들은 떨며 놀라 나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거듭 "믿지 아니하더라"가 기록되고, 보내심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로 장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새벽 무덤 앞(1-2). 소품 = 향품·굴러간 큰 돌·흰 옷 청년·"두었던 곳". 시간 = 해 돋을 때.
2 첫 느낌·분위기	무거운 걸음이 "살아나셨다"에서 환해짐. 8절은 떨림으로 단힘. 걱정과 곧 풀림.
3 시작과 끝	시작 — 무덤으로 향함(1-2절). 8절 — 떨림으로 한 걸 단힘. 9-20절 — 보내심·함께하심(20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세 여인·흰 옷 청년·(이어지는 단락) 제자들. 찾음과 비어 있음(6). 베드로 호명(7). 떨림과 보냄.
5 장면 컷	컷 1 새벽 걸음(1-2). 컷 2 굴러간 돌(3-4). 컷 3 청년의 전갈(5-7). 컷 4 떨림(8). 컷 5 나타나심·민지 앓음(9-14). 컷 6 보내심(15-20).
6 의문·발견·정보	걱정과 풀림(3-4). 떨림과 침묵(8). 사본 사정(9-20, 판단 보류). 베드로 호명(7). "민지 아니하더라" 반복.
7 동영상	향품 든 새벽 → 굴러간 돌 → "살아나셨다" → 떨림 → 나타나심 → 보내심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굴러간 돌과 빈자리 —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제 — "향품을 든 슬픔의 걸음에서 굴러간 돌과 빈자리로, 그리고 보내심으로".
9 동영상 안건기·기도	새벽 길과 빈 무덤 길을 걸으며 굴러간 돌 앞에서 빈자리를 바라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걱정과 곧 풀림:** "누가 돌을 굴러 주리요"(3절)라는 걱정이 "이미 굴러져 있더라"(4절)로 바로 풀린다.
- 결 2 — 찾음과 빈자리:** "찾는구나"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6절)가 한 문장에 놓이고, "두었던 곳"이 가리켜진다.
- 결 3 — 떨림과 보냄:** 8절의 떨림으로 한 걸이 달히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보내심과 함께하심(15·20절)이 온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막 14:28**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의 성취, 7절), **막 14:66-72** (부인한 베드로의 호명), **막 8:31-9:31-10:34** ("사흘 후 살아남"의 닿음).
- 정경 흐름 — 16장의 빈 무덤은 마가복음 첫 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1:1)과 멀리서 호응한다.
- 사본 사정 — 9-20절은 전승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단락(관찰 단계는 판단 보류).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향품을 든 채 새벽 길을 걷는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이미 굴러간 큰 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떨며 말을 잃은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슬픔으로 간 걸음 끝에 "살아나셨다"가 놓인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굴러간 돌 앞 빈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새벽에 무덤으로 간다
- [x]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다
- [x] 흰 옷 입은 청년이 "살아나셨다"를 전한다
- [x]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두었던 곳이니라"가 말해진다
- [x]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 전갈이 주어진다
- [x] 여인들이 떨며 말을 잃는다
- [x] (이어지는 단락) 보내심과 함께하심으로 달린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가복음의 운동은 "**메시아 비밀의 숨김에서 십자가의 드러남으로**" — 권능의 메시야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호(arc)다. 16장은 그 호의 **도착점이자 다시 여는 자리**다. 잠긴 무덤(15장)이 빈 무덤으로 열리고, "그가 살아나셨다"(6절)가 8·9·10장에서 거듭 예고된 "사흘 후 살아남"에 닿는다. 흰 옷 입은 청년의 전갈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7절)는 14:28의 약속을 성취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름으로 따로 호명된다. 빈 무덤은 마가복음 첫 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1:1)과 멀리서 호응하여, 끝이 다시 시작을 가리킨다. 다만 이어지는 9-20절은 사본 전승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단락이므로, 관찰 단계는 그 사정만 적어 두고 판단을 보류한다. 본문이 가리키는 빈자리와 갈릴리 전갈까지가 — 그 도착점에 16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슬픔의 걸음(향품을 들고 무덤으로)→"살아나셨다"(빈자리, 6절) / 무덤으로 내려가는 걸음→갈릴리로 보내지는 걸음(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찾던 슬픔에서 살아남의 소식으로 미는 운동이다. 향품 든 새벽 걸음(1-2절) →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 걱정과 이미 굴러간 돌(3-4절) →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6절) → 갈릴리 전갈(7절) → 떨림과 침묵(8절).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무덤으로 향하던 슬픔이 빈자리 앞에서 보내짐으로 뒤집히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굴러간 돌과 빈 무덤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회복되는 본질은 **찾던 자리의 없음이 도리어 살아남의 자리가 되는 통치**다. "찾는구나"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6절)가 한 문장에 놓여, 없음이 끝이 아니라 일으켜지심(égerthè)의 표가 된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름으로 따로 불리는 것(7절)은, 무너진 자를 다시 부르는 걸을 가리킨다. 빙산의 수면 위는 빈 무덤이지만, 아래는 없음을 살아남으로, 흩어진 자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는 통치다 — 다만 그 풀림의 끝(9-20절의 전승)은 단정하지 않고 보류한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슬픔으로 간 걸음 끝에 없음이 도리어 살아남으로 풀리는 자리가 보인다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조차 빈자리 앞에 멈춰 서는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향품을 든 슬픔의 걸음과 굴러간 돌 앞 빈자리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빈자리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살아나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마가복음의 마지막 빈자리가 곧 갈릴리로의 보내심으로 —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전갈이 무덤 밖으로 걸음을 돌려, 끝이 다시 첫 절 "복음의 시작"(1:1)을 가리키며 열린다.

미해결 질문

마가복음 1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3절)의 걱정이 곧 풀림(4절)은?

- 본문은 걱정과 풀림을 바로 잇뎀.
- 풀림의 걸음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6절)의 손짓은 무엇을 남기는가?

- 비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한 마디.
- 가리킴의 걸음은 묵상으로 이월, 보류.

Q3. "제자들과 베드로에게"(7절) 베드로만 따로 부름은?

- 부인한 이름이 다시 호명됨.
- 따로 부름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기쁜 전갈 뒤에 떨림·침묵(8절)이 오는 까닭은?

- "무서워함이라"로 한 걸이 닫힘.
- 떨림의 걸음은 묵상에서 다시.

Q5. 9-20절의 사본 사정은 무엇을 남기는가?

- 사본에 따라 전승이 갈린다고 알려진 단락.
- 관찰 단계는 사정만 적고 판단은 보류.

Q6. "믿지 아니하더라"가 거듭(11·13·14절) 기록됨은?

- 부활 소식 앞의 망설임이 반복됨.
- 반복의 걸음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